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1+2
JAN + FEB

2023 vol.22



특집 **참사와 참된 위로**

사람 사이 이상갑 산본교회 담임목사

청년 시론 수저가 불을 만날 때

문화로 세상 보기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공동체와 예술

ISSN 2671-8731



Contents

JANUARY + FEBRUARY · 2023

시선

안전불감증을 고쳐야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회적 재앙 | 신국원 04

특집

참사와 참된 위로

고통받는 인간과 연대하신 그리스도 | 권연경 06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가 왜 어려울까

: 10.29 참사를 생각한다 | 신성만 08

내 백성을 위로하라 | 황해숙 10

참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 김영식 12

법의 눈물, 법의 괴로움 : 이태원 참사와 법의 위로 | 이병주 14

폭력의 언어를 찾는 '믿음의 눈'에 관하여 | 안송범 16

이태원 참사와 현 정부의 선택 | 오형국 18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슬퍼하는 이의 고통을 우선하는

위로와 연대, 그리고 중보 | 김현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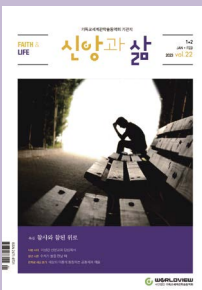
예수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 : 이태원 참사를 돌아보며 | 정명현 22

사람 사이

이상갑 산본교회 담임목사 24

섬김의 자리에서

은혜에 힘입어 영원한 청춘으로!! | 추태화 28



2023. 1+2월호 | 제22호(통권 237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수저가 불을 만날 때 장요한	30
나의 하나님 최베드로	32
청년일터이야기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삶 김보희	34
결국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규성	3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위한 영화 강진구	38
미술을 보다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공동체와 예술 서성록	40
책을 보다	
아인슈타인의 큰 그림을 통해 본	
과학과 종교의 대화 엄동한	42
참된 기억과 역사, 그리고 망각의 조건을 넘어서 석종준	44



교회 路

예천제일교회 기독교 세계관 프로그램 소개 김운수	46
머리끝까지 짙하게 하는 얼음냉수 같은 시원함 이지은	47

은전한 지성

헤르만 도어베르트의 기독교 세계관(1)	
- 생애와 사상 최용준	48

소식

독자 한마디	51
사무국 소식	52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안전불감증을 고쳐야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8년 만에 또다시 159명의 가까운 생명이 이태원에서 희생되었다. 모든 한국인이 안타까워하며 한국인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한다.

세월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진실규명을 외치는 소리가 높다. 책임자 파악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의 희생이 가치 있거나 명예롭게 되지는 않는다. 세월호의 경우에는 8년이란 시간과 2000억 원이란 거금이 투입되었는데도 만족스러운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 사회의 질병이 되고 있는 정치적 이념갈등의 소재가 되어 '우리 모두의 탓'이 아닌 '너희들의 탓'으로 정죄하는 바람에 희생자들에게 미안함을 지닌 시민의 수가 반감되고 말았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304명의 희생이 우리 사회에 아무 긍정적인 자취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실규명의 요구가 과유불급이 되고 말았다. 이태원에서 희생된 고귀한 생명은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세월호와 이태원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고 올바르게 대우하는 길은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어떤 성질의 것이든 우리 사회에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다. 물론 책임자를 가려내어 처벌함으로써 일벌백계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와 꼭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해양사고는 줄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다 한다.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의 근본 원인은 우리 한국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안전불감증이고 이것을 고치지 않는 한 크고 작은 참사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속도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불과 100년 전에는 자전거도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다. 과학기술의 이런 발전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엄청나게 키웠다. 그런데 그 힘을 안전하게 잘 사용하면 매우 생산적이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실수하면 엄청나게 파괴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 힘이 커지는 속도만큼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의식은 키우지 못했다. 기술발전에 의식이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소달구지를 몰고 다

니던 때의 의식 수준으로 버스나 비행기를 몰고 있는 것이다. 소달구지를 몰 때는 “설마, 수레가 도랑에 빠지겠어?”라고 하면서 좋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버스나 비행기를 몰면서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며 좋아서는 안 된다.


수년 전 길이 없어 통통배를 타고 강을 따라 오르내려야 하는 한 필리핀 오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에게 그 배에 구명조끼가 있는지를 물어 본 적이 있다. 그는 근 수십 년간 수많은 한국 방문객들을 그 배로 실어 날랐지만 구명조끼를 언급하는 사람은 나와 한 미국인 선교사 둘 뿐이었다 했다. 그런데 구명조끼가 없다 하자 그 미국인은 얼굴이 하얘졌다고 했는데, 나는 겁을 먹기는커녕 다른 한국인들과 다름없이 “아, 그래요!” 하고 잊어버렸다. 선박사고 위험에 대한 무대책에 왜 미국인은 얼굴이 하얘지고 왜 나를 포함한 한국인은 심각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왜 한국은 산업재해사망자 수가 OECD 중에서 가장 많고 그 1등이란 불명예를 지금도 계속해서 달고 있을까? 금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왜 달라진 게 별로 없을까? 왜 기업인은 안전보다 이익을 중시하고 왜 근로자들은 안전 도구가 거추장스럽다고 귀찮아할까? 한국 정도의 경제, 기술, 문화, 교육수준을 누리고 있는 세계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왜 우리만큼 인재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모두 우리의 고질인 이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고 하는 부끄러운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물리적 힘은 계속 커질 것이므로 이런 안전불감증이 고쳐지지 않은 한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은 또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이 후진적이고 살인적인 안전불감증을 고치자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경찰, 소방관, 행정기관, 국회, 기업인,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에 더 민감하고 조심하며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산업재해도 줄어지고 사고도 줄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공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따라서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진상규명보다 그들의 죽음을 더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가르치셨다. 나의 목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마찬가지로 소중하다. 살인이 가장 악한 범죄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창피한 안전불감증을 고치는 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다. 안전불감증은 앞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계속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고질을 고치지 않는 것은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서 일종의 부작위(不作爲, omission)에 의한 살인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에서 희생된 사람들 하나하나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산 자들의 의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 섬기고 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회적 재앙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하는 우리 사회에 또다시 원시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선>은 우리 모두 부끄러워할 일이라 했습니다. 이를 정쟁거리로 삼아 반성을 방해하는 것은 더욱 그렇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부작위 살인'으로 스러지게 하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지만 안전불감증의 근본적 치유가 희생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임을 일깨워줍니다.

<특집> 글 모두가 말로는 위로하기 어려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권연경 교수님은 고통과 죽음에 취약한 우리와 몸으로 함께하신 예수님의 성육신 진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하는 이유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신성만 교수님은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성이 공감과 연대를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참된 이웃이 되는 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황혜숙 대표님은 '공동체적인 사회적 애도'를 해야 할 상황에 진영 논리로 다투는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교회만은 유족의 아픔을 겸손하게 나누며 아픔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드러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 김영식 대표님은 유가족이 또다시 거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 더 큰 비극임을 지적합니다. 진실 규명이 용서와 회복의 출발점이고 재발 방지책이며 이를 기억해야 교훈을 잃지 않고 참된 위로도 건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병주 변호사님은 헌법, 형법, 민법상의 피해자 '위로 제도'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법이 책임을 축소하고 무마하는 경우도 있어 재판이 위로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안승범 교수는 믿음의 눈으로 참사를 살펴 폭력의 언어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단지 영적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담론에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형국 목사님은 책임자가 할 일을 하는 대신 권력자의 안위만 돌보는 현실을 잠언 말씀으로 질타합니다. 김현아 사무국장님은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있어야 이들과 연대가 가능함을 깨우쳐줍니다. 정명현 형제는 참사로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침체된 사회에 희망을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이상갑 목사님은 청년들을 줄곧 섬겨 주신 목회자로 누구보다 이번 참사를 안타까워합니다. 헬러윈의 이교적 의미는 경계하되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을 권합니다. 세상과 혼합이나 단절이 아니라 변혁의 태도를 가지라고 했고요. 구체적인 목양의 실례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참사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애도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진정성을 갖춘 위로자와 치유와 회복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

신 예수님의 본을 따를 때 희망과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광야에 길과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망하지 말고 한걸음 씩 나아가길 당부합니다.

〈섬김의 자리〉 추태화 교수님은 문화 연구가로서 동역회 기관지의 〈영화를 보다〉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 간에도 많은 봉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일로 바빠서 힘써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꾀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청년 시론〉의 장요한 전도사님은 수저론과 신계급론이 청년들의 가치와 세계관을 주도하지 못하게 해 줄 방안으로 불이 흠을 도자기로 변화시키는 영적 체험을 제시합니다. 최베드로 형제는 학부 시절 캠퍼스에서 인격적 신앙으로 거듭난 경험과 이제 대학원 실험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전합니다. 〈청년 일터 이야기〉의 김보희 자매는 법조인으로 살며 경험한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익혀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규성 형제는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의 강진구 교수님은 〈로봇, 소리〉에 비쳐진 참사 유가족의 분노와 자책, 슬픔과 원망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도 알려줍니다. 〈미술을 보다〉의 서성록 교수님은 에릭 피슬이 9.11 테러 후 발표한 〈열 개의 숨〉(Ten Breaths)를 보여줍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 애쓰는 의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희생자에 조의와 지지를 표한 작품입니다. 이처럼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앞서 실천해야 할 신앙적 양심의 요구라고 했습니다.

〈책을 보다〉의 열정적인 교수님은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아인슈타인에 답하다〉를 소개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과학적 업적과 철학적, 종교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학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총체적 관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독교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석종준 선교사님은 폴 리콰르의 〈기억, 역사, 망각〉을 통하여 남용되지 않는 과거 사건에 대한 재현 방식의 실현을 소망합니다.

〈교회로〉에는 경북 예천제일교회의 기독교세계관학교가 소개됩니다. 김운수 담임목사님이 목양의 한 장으로 기초학습과 윤리적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비전을 얻은 이지은 권사님의 간증과 더불어 지방 소도시 교회에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지성〉에는 한동대의 최용준 교수님이 5회에 걸쳐 기독교 세계관을 폭넓은 사상체계로 발전시킨 2세대 신칼뱅주의 철학자 헤르만 도어베르트의 기여를 소개합니다.

항상 글쓰기와 편집으로 수고하신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과 헌신이 참사를 함께 슬퍼하는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FAITH & LIFE**



 글쓰기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고통받는 인간과 연대하신 그리스도

권연경 (숭실대 기독교학과 신약학 교수)



참사에 대한 분석이나 위로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려 한다. 대신, 이 글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향해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잠시 묵상해 보자.

복음은 구원을 말한다.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다. 죄가 삶의 이야기라면,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역시 우리 삶 한가운데서 시작된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그의 구원은 마치 슈퍼맨처럼, 하늘에서 날아와 문제투성이인 지상으로부터 우리를 낚아채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은 문제가 발생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이루어진다. 비유를 계속하자면, 빨간 망토에 푸른 줄바지를 입고 먼 곳에서 날아오는 슈퍼맨이 아니라, 굵은 빨테 안경을 걸치고 군중 속에 뒤엉킨 클라크 기자의 모습으로 구원의 드라마를 펼친다. 바로 성육신의 진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같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다.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내가 구출

되려면, 바로 내가 처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죽음이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생명/부활 또한 사람을 통해 와야 한다(고전 15:21).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 처음 창조된 존재가 “사람”(히브리어, “아담”) 이듯, 우리의 구원자 또한 “(마지막) 사람”이다(고전 15:45). 첫 “사람”을 통해 죄와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처럼, 이 마지막 “사람”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은총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롬 5:15-21).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드라마는 불가불 내 삶의 이야기와 얽힐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는 이 “인간” 예수를 강조한다. 그는 제사장과 같다. 하나님을 대리하지만, 또 우리와 같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기에,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련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뚫속 깊이 공감한다. 바로 이 공

감이 구원의 근본 조건이다. 심리적 공감을 넘어, 온몸으로 삶을 같이하는 실존적 공감이다. 요새 말로 하자면, 가장 근원적 의미에서의 “참여와 연대”다. 죽음의 고통 아래 놓인 “인간”과의 철저한 연대를 통해 그리스도는 비로소 인간의 구원자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셨다. 몸소 시험을 겪은 존재이기에,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히 2:17-18).

물론 그리스도의 연대는 평범한 인간의 공감과 다르다. 아담이 시작한 불순종의 악순환과 달리, 그리스도는 고통을 통해 순종의 몸짓을 만들어 냈다. 원래 순종하게 되어 있어서가 아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며 몸소 순종을 “배워야” 했다(히 5:8). 바로 여기서 그는 우리와 다르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히 4:15). 그는 우리 아담들이 실패를 딛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참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신 분이다. 순종을 통해 그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셨고, 이를 통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토대가 되셨다”(히 5:9). 히브리서는 그를 “선구자”(헬, “아르케고스” - 창시자, 개척자)라 부른다(히 2:10; 12:2). 곧 “먼저 달려가신 분”(forerunner, 헬, ‘프로드로모스’)이다(히 6:20). 물론 그의 고난은 연약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행동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은 나를 끌어들이는 선제적 행보이기도 하다. 그는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 내 삶 가운데 길을 내며 앞서가셨다. 그리고 나는 그가 열어드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밟으며(히 10:20), 내 “믿음”과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달려간다(히 2:10; 12:1-2).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아래 살아간다. 이 공포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노선”이다(히 9:27). 예수는 이 죽음

의 위력을 휘두르는 마귀를 정복하고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다(히 2:14). 그의 이 행보는 우리 길을 앞서가신 “선구자적” 행보였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선구자를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달려간다. 그리스도의 행보는 우리 삶을 위한 지도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모습을 재현하며 우리 길을 간다. 그 모습의 핵심은 죽음의 공포 아래 있는 이들을 향한 참여와 연대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행보가 된다. 바울의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빌 3:10-11).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고통은 모순이다. 죽음은 그 모순의 극단적 형태다. 욕기에서처럼, 모든 설명이 실패하는 “답 없는” 아픔이다. 우리의 최선은 이 고통과 답 없음에 함께 하는 것, 곧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공감이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었듯, 사회의 고통을 향한 참여와 연대의 몸짓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이자 그의 구원을 구체화하고 넓혀가는 선교의 발걸음이 될 것이다. 경쟁적 욕망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타인의 악함과 고통에 대한 공감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절, 사람이 되어 우리의 고통 속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생각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권연경

송실대 기독교학과 신약학 교수이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M.Div.)와 예일대학교 신학부(S.T.M.)를 거쳐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와 바른교회 아카데미 연구위원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로마서 산책>, <행위 없는 구원>,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등이 있고, <일상, 부활을 살다>, <IVP 성경신학사전>, <예수의 정치학>, <기독교와 문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가 왜 어려울까 : 10.29 참사를 생각한다

신성만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 이 말씀이 쉬운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생각만으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고의 오류로서, 어떤 일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항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의 경향성이다. 또 자신이 관여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타인이 관여하는 일은 그 원인을 그 사람 내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성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일어난 일이 그 사람의 내적인 자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실제보다 더 강하게 믿고자 한다. 나에게도 코로나19에 걸려 온 나의 가족 구성원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문제의 본질을 그의 부주의함이나 배려 없음에 있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분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서 비롯된 오류에 뿌리가 있지만, 적어도 코로나에 걸려보니 코로나로 고통당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심정 그리고 그것에 공감한다고 생각했던 필자의 상상 속 공감이 얼마나 허튼 생각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된 면도 있다. 말은 행동이다.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 폭력도 신체적 공격 이전에 언어적 폭력이 나타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행동이다. 일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사회정체성 이론’이라는 이론도 있다. 여러 실험을 통해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실재함을 증명

해 왔다.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욕구로 소속감을 느껴야 하는데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못함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방당함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두려운 경험이다. 이러한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지 못할 때, 즉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편 가르기를 시도한다. 항상 조직 내에 사람들을 이간질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들을 보아왔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집단과 외집단의 편을 가르면서 떨어진 자존감을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함께 비밀을 나누는 동안에는 자신이 같은 편 또는 더 강한 편에 속해 있다는 찰나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떨어진 조직일수록, 생존의 위협을 느낄수록 우리는 서로 분열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릴수록 타인을 포용하려 하지 않고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다. 왕따를 당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왕따를 가하는 아이들이 되어있음을 우리는 현장에서 보고 있다.

우리와 그들은 다르며 그들의 고통과 불행은 그들 안에 이유가 있다는 그런 판단과 정죄의 말을 스스로 없이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를 불쌍히 여김은 그의 체휼함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서 피해 갔던 대체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될 수 없었는데 그들은 아마 강도 맞은 자를 자신들과는 너무도 다른 존재로, 그리고 고통을 당해야 할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멀찍이 피해 자기 갈 길들을 갔을 것이다. 그들이 매일 드리는 예배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강도 맞은 자의 이웃

이 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은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용기를 내었으며, 실제로 자기가 지금 가진 것으로 이전에도 여러 번 해 본 듯 능숙한 솜씨로 꼭 필요한 도움을 지체치 않고 제공하였고, 힘을 모아 줄 나귀와 동역자도 있었다. 고통당하는 자를 버려두고 자기 '의'에 취해 분노하며 강도를 잡으라고 소리치며 달려가지도 않았다. 예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10.29 참사의 당사자들과 가족들 앞에서 되새겨 본다. 우리의 연약함은 지극히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소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무겁게 받게 한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대해야 하며 우리가 하는 말부터 주님 보여주시신 본모기를 따라야 할 것이다. 위로와 사랑과 권면과 회복의 언어를 나누어야 할 것이며, 상한 자를 감싸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돕는데 용기를 내고 재정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나와 그들을 구분하며 판단과 정죄의 말을 쏟아내는 자리에 앉아여리고로 급히 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신성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전공 교수이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재활상담학 박사학위를 받고 심리치료 전문가로 일했으며,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병원에서 교수요원으로 일했다.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상담협회 등에서 심리치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중독심리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였다. 기독교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황혜숙 (소울 PCIT 심리상담센터 대표)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하며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처음엔 현실감마저 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났던 것은 요즘 만나고 있는 청년 내담자들이 “혹시나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속절없는 불안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내가 상담하는 청년 내담자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지만, 걱정 가운데 며칠을 지나는 동안 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몇 번의 상담 문의를 받았다. 하지만, 문의만 있었고 상담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에 나는 내심 안도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무력감 때문이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직후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이태원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였다. 이런 조치들은 이태원 참사를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슬퍼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공동체적인 사회적 애도의 시작으로 마땅한 조치였다. 하지만, 참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극심한 진영 논리에 휘말리며 둘로 나뉘었다. 보수 진영은 참사 희생자들의 부주의를 정죄하고, 진보 진영은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여갔다. 애도 기간을 설치한 것이 유가족의 고통을 전면에 배치하고 국가와 사회가 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급작스러운 재앙으로 슬프고 황망한 가운데 모두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려는 위장된 ‘애도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했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비극 앞에서 한국 사회는 둘로 나뉘어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다.

그래도, 한국 교회 공동체만은 참사로 상처 입은 이들, 자녀를 상실한 이들을 한마음으로 위로해야 한다. 물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읊에게 달려갔던 세 친구의 위로도 여호와께서는 우매했다고 하였으니(욥 42:8), 이태원 참사의 아픔에 처한 이웃에게 주는 우리의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우매한 말이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어디에선가 시작해야 한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어떻게 체휼하시는 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민망히 여기신다(마 9:36). 하나님은 이태원 참사의 아픈 순간들에 희생자들과 함께 고통받으시고 슬픔을 함께 하시며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7)라고 명하신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상실한 부모의 애도 과정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우울, 무기력, 분노와 같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불면증이나 통증 등의 신체적 문제를 겪는다고 한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자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 부모로서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자책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다는 한스러움과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없음에 대한 무력감으로 일상 혹은 이전 생계 활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감정에 빠져든다. 그들은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주위 지인과 친인척들의 도움마저 때론 위로가 되지 못해 그들과도 분리되며, 자녀를 떠오르게 하는 것들과 차단을 시도하면서 점차 사회로부터도 단절되는 고통을 겪는다. 또 부모들은 희생된 자녀에게 정신을 쏟고 이해할 수 없는 자녀 죽음의 이유에 집착하느라 남은 자녀에게 신경 쓰지 못해 방임하게 되고, 부부간 소통이 단절되거나 심한 갈등 가운데 위기를 맞기도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도 분란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로 자녀 죽음에 대해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국가와 정부의 보여주기식의 태도에 대한 실망과 불신, 분노로 극도의 배신감이 유족들을 끝이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간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2월 10일 출범하면서 창립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사가 일어난 지 무려 43일이 지나서야 가족들이 겨우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상황은 유가족들이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진심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계속 늦어진다면, 그들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 기독 공동체는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참사 유족의 아픔을 겸손하게 듣고 체휼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유가족들이 그들의 아픔을 눈치 보지 않고 드러내어 마음껏 이야기하며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진영 논리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희생자들과 함께 울며 “함께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아픔 가운데 처한 희생자 친지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애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태원 참사의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면, 주님 오실 날까지 이와 같은 아픔은 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라는 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기독 공동체를 향한 여호와의 명령이니 어찌겠는가? **FAITH & LIFE**



 글쓴이 황혜숙

‘소울 PCIT 심리상담센터’ 대표이다.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기독교상담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으며, 주요 관심사는 애착 이론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치료’(PCIT)이다.

참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前 공동대표)

다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 참사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태원 거리에서 159명의 귀한 생명을 거리에서 또 잃었다. 인파가 몰릴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참사 발생 3시간 전부터 사고를 우려하는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 참사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피해자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번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참사 이후에 충분한 위로와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유가족들이 차가운 길바닥에 나와 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누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있다. 참사도 비극이지만 참사 이후의 가족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더 큰 비극이다. 자녀를 질병으로 잃어도 그 고통은 평생을 가게 되는데, 길거리에서 자녀를 잃은 고통에 더해,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하고 사회적 조롱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사회적 안전에 대한 정부 역량도 부족하고,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참사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참사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지기가 필요하다. 철저한 조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고통스럽다.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극심한지, “야수가 심장을 파먹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다.¹ 그러나 불분명한 사고 원인, 사실 은폐, 책임회피의 모습은 충분한 애도를 가로막는 것을 넘어 분노를 유발한다. 이해되지 않는 상실, 충분히 슬퍼하지 못한 슬픔은 사람을 괴물로 변하게 한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의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참된 애도와 회복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진실의 규명은 용서와 회복의 출발이다. 값없이 주어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도 자신의 죄책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나 그렇지,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서야 비로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힘든 이유도 가해자인 일본의 진실 부정, 축소, 은폐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가 발생하지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노사이드 범죄에 가담한 사람을 찾아내서 재판대에 세우는 이유도 그것이 용서와 회복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진상규명과 마땅한 책임 없이 과거사를 덮는 것은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며, 진상규명과 마땅한 책임을 묻고 나서야 비로소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1. 김동선. (2022),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 두란노 서원.

두 번째로 진상규명과 마땅한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고는 예방이 먼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만든 국가는 완전하지 않고, 사회적 참사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실패로부터 배우서 불완전한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건강을 잃었을 때 여러 건강 검진을 받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점검하며 보다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참사를 막지 못한 원인과 부족한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하고 점검해야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수 7:25-26)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기억하는 일이다.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미 있는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한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기념해서 기억하게 한다.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멈추게 한 사건을 기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 땅에서 취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간이 어겨 여리고 정복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도 돌무더기를 쌓게 해서 기억하게 한다. 기억해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기억해야 후세대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리석은 과거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삶을 추

구한다. 왜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는지, 참사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 이는 남은 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넘어 후세대에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토대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일이다.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뻔했던 상황에서 미리 질서유지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은 판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도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한 판단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피해자 구조가 힘들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남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세대는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배워갈 수 있다. 반대로 참사를 축소·은폐하고 슬픔 중에 있는 이웃을 대했던 국가의 태도에서도 후세대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생생하게 체득하며 자라게 된다. 이는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다. 자랑스러운 기억도, 부끄러운 기억도 그대로 학습되기 마련이다.

참사와 참사 이후 수습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슬퍼하는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동일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과 참사를 아파하는 시민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다. 이 길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고 동참하길 희망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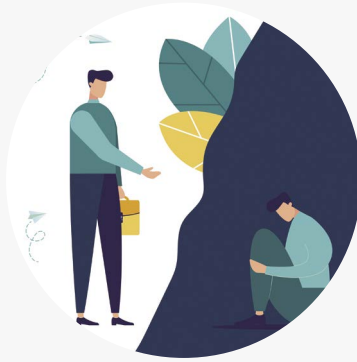


글쓴이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시역(2018~2022)을 막 마치고 화정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복직을 앞두고 있다.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교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사모임 대표(2013~2016)로도 섬겼다.

법의 눈물, 법의 괴로움 : 이태원 참사와 법의 위로

이병주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있다. 법은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법은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무기력하거나, 억울함을 더 사무치게 만들기도 한다. 법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 법이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씻고 법이 위로가 된다. 그러나 법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법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법으로 괴로움을 더해준다. 아직 법적 절차와 논쟁이 진행 중이라 비관적인 결론을 속단할 수도 막연히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법이 피해자와 눈물을 함께 흘릴지, 법이 피해자의 괴로움이 될지, 법과 재판의 기능과 한계에 관해서 검토해본다. 시작점의 명제는 법의 순기능, “법에는 피해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법이 위로를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첫째는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 10조가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는 34조 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로 구체화되어 있다.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보호의무’는, 근대 민주주의 헌법이 집중했던 ‘국가의 (소극적) 기본권침해금지 의무’와 더불어 20세기 현대국가 헌법이 인식하고 발전시켜온 국가의 핵심적인 헌법적 의무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미흡하다고 비판받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공무원들 일부가 업무상과실치사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호 의무에 관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위반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련 고위 공직자들의 헌법적 책임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한 책임추궁 여부는 아직 미결 상태이다.

둘째는 형법 절차이다. 아직 형사 절차는 시작 단계에 있으나, 최소한의 형사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논쟁의 대상은 (i) 죄목이 ‘고의범-살인죄’인가 ‘과실범-과실치사죄’인가의 점과 (ii) 형사책임 범위가 상급 공무원으로 확대될 것인가의 점이다. 지금 정부는 과실치사죄에 하위 책임 공무원들 기소로 형사책임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비판 받고 있지만, 형사 기소와 처벌의 범위에는 특검제도의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형사 절차를 통한 위로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미리 낙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세월호 사건의 조사와 미흡한 만족도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세상의 형사사법 절차에는 증거를 통한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말미암아 ‘만족할만한 수준의 신원(伸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는, 국가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민사절차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민사절차에서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의 금액은 법이 주는 위로로서는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 같다. 반대 명제는 법의 역기능, 즉 “법이 피해자와 함께 눈물 흘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괴로움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다. 이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법과 재판은 피해자의 위로에 대해서 공평무사한 중립적 심판관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법의 집행기관인 국가 자체가 가해자의 자리에서 있는 경우 정부와 사법기관은 스스로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어, 성경의 다윗왕처럼 책임을 축소하고 무마하는 데 법과 힘을 사용할 유혹을 느끼고 또한 그렇게 행사하게 된다. 이때는 법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고 피해자에 대해서 주먹질을 하는 가해자가 된다. 인류 역사에서 이 일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사람이 하는 법과 재판제도의 근원적인 한계에 더해서 국가가 국민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권력적 불평등은 법을 왜곡시키고 법을 기증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필자는 소송변호사로서 한편으로는, 법의 순기능에 의지하여 많은 재판을 하고 법이 주는 위로를 의뢰인과 함께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재판에서 법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거나 냉혹한 판단으로 가하는 ‘법의 괴로움’으로 고통받은 일도 많다. 왜, 법과 재판이 순전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괴로움이 되기도 하는 것일까? 이것은 법을 잡고 재판을 하는 권력자와 세상의 심판관들 또한 죄인이라는 기독교의 진리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법과 재판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법과 재판으로 세상의 눈물을 다 씻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법과 재판을 둘러싼 노력을 포기하면 세상은 곧바로 모든 사람이 눈물과 원통함에 빠지는 이생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태원 참사의 법적 신원과 관련해서도, 어렵고 답답해도, 인내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현명하게, 법이 피해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법이 위로를 주고, 법이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끈질기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FAITH & LIFE



 글쓴이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이자 27년 경력의 현직 변호사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학부, 하버드대 법률전문대학원(LLM)을 졸업했다. 현재 평신도 대중단체연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오크스: 옥해야 하는 인간>, <옥하는 기독교, 옥먹는 기독교>(평신도의 발견 개정증보판), <기독교와 법에 대하여> 등이 있다.

폭력의 언어를 찾는 ‘믿음의 눈’에 관하여

안승범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소장)



‘4.16 참사’, ‘10.29 참사’와 같은 사건을 두고, 신앙이 곧바로 정제된 언어를 내기는 어렵다. 성경은 모두의 모두를 위한 ‘영적 교훈’을 담아내지만, 현실에서 벌어진 개별 사건에 ‘진단-대책’ 프로세스를 제공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2014년에 단원고 학생들이 진도에 간 사연을 우리는 대략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2년에 희생된 청년들이 이태원에 간 이유 역시 짐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거기에 이른 사연이 각기 변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단-대책’에 관한 ‘영적’ 처방을 내리곤 한다. 이를테면 “왜 갔을까?”에 대한 답을 단순화한 후 공론장에 던져진 사회적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 제한하는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10.29 참사’ 희생자들이 이태원에 간 행위는 사적 선택의 영역에 놓이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사회구성원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공적 책임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신앙의 언어는 공적 책임을 나눠진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숙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을 강조하면서 혹자는 헬러윈 축제가 악령을 쫓는 우상숭배라고 단정하는 듯하다. 다른 누군가는 이태원이라는 장소가 본디 향락적이고 문란한 서양문화의 진원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태원은 미8군 사령부와 인접해 발달한 까닭에 독자적인 혼종성의 문화를 일궈왔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 정체성 자체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태원을 동성애와 마약이 판치는 곳으로 규정하려는 태도는 ‘호도’의 더 극단적인 양상일 수 있다. 실제로 ‘10.29’ 참사를 둘러싼 그리스도인의 공론장 일각에는 호모포비아(homophobia),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가 어른거리고 있다. 공적으로 주춤했지 않은 행사에 자발적으로 찾아가 놀다가 죽었는데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시선도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일각에서는 편향된 정치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들을 향한 인터넷 댓글에 레드포비아

(redphobia)가 출현하는 익숙하지만, 여전히 슬픈 장면도 목격된다.


‘10.29 참사’ 뉴스에서 처음 ‘압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파잉 경쟁 구조에 시달려온 청년들의 현실을 떠올렸다. 계층화·양극화를 조장하는 구조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수많은 청년들은 그저 ‘도태’될까 연연하며 살아간다. <오징어 게임> 속 잔인한 게임에 죽은 이들이 규칙과 시스템에 내재된 폭력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병철은 <피로사회>를 통해, 성과를 향한 열정 속에 “박탈(privativ)하기보다는 포화(saturativ)시키며, 배제(exklusiv)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exhaustiv)시키는” 폭력이 스며 있다고 말한다. 비단 한국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흥행을 한 게 아니겠는가), 한국의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착취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타인을 착취하는 경쟁 무대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다. 더욱 애처로운 것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오늘날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세대 간 경쟁에서도 이미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압사’라는 단어는 차가운 의과학적 용어이기 이전에, 근본적인 반성을 요청하는 뜨거운 사회학적 용어인지도 모른다.

‘10.29’ 참사 이후 그리스도인 중 일부는 자숙하고 회개하며, 책임의 몫을 찾고 있다. 다른 누군가는 모여서 기도회를 갖기도 하고, 모금 활동 등을 통해 실천적인 지원을 하는 이들도 있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 중 일부는 참사 예방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궁리하고 있다. 그런데 참사가 벌어지면 희생자의 선택과 행위에서 ‘희생’의 명분을 발굴한 후, 단순명료한 ‘영적 교훈’을 설교하는 이들이 난립한다. 그들 모두를 탓하

고 싶진 않다. 그러나 누군가의 비극을 개인 신앙 성숙의 계기로 치환하는 데 그친다면, 교회는 현대판 바리새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2천여 년 전,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희생자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이유를 공유했던 것 같다. 그와 같은 합리적(?) 묘비명은 대개 너무 명쾌해서 이기적이다. 유념할 건,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며 “망하리라”(눅 13:5)고 말한 대목이다.

‘10.29 참사’를 생각하면, 예방을 위한 대비에 실패했고, 구조를 위한 현장 대응에도 실패했으며, 공권력의 수습을 위한 체계적 노력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건 시스템 보완을 위한 대책 마련이다. 이마저 실패한다면, 우린 희생자들에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다. 이 순간 그리스도인은 극단적인 분리주의자, 혹은 배타주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이 되어선 안 된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가족과 그들의 이웃 앞에서 흘린 눈물(요 11:35)을 생각할 때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기 위한 노력이 곧 경건의 신앙(약 1:27)이라는 말씀을 묵상해야 할 때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까지 이태원에서 멈춰선 159명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AITH & LIFE**



 글쓴이 안승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대학 부설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소장이다. 경희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서사학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공부했다. 영화평론가, 시인으로 활동하며 EBS <시네마천국>을 진행한 바 있다. 저서로 <SF, 포스트휴먼, 오토피아>, <환멸의 밤과 인간의 새벽> 등이 있다.

이태원 참사와 현 정부의 선택

오형국 (목사, 청년신학아카데미 대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국가기관의 작동방식에 따라 이런 비극도 가능하다는 놀라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았다. 이제 벌써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사후조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초만 해도 위로받지 못한 희생자 유족들을 함께 안타까워하며, 피할 수 있었던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감되는 조치가 제시될 것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전후의 사정들이 드러날 것은 거의 드러나고 눈치챈 것은 다 눈치챈 상황에서 기대는 냉소적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듯하다. 책임과 권한을 권 인사들이 참된 위로를 위한 진실과 신원(伸冤) 보다는 무마와 망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사 상황에 대한 피상적 해명은 덮이지 않는 사실과 신랄한 통찰에 의해 논박되고 있다.

국가의 부재 vs 민첩한 국가

이번 참사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일차적 반응은 '국가의 부재' 또는 '정부 시스템의 작동 불능'이었다.

그러나 사후처리와 전후 상황이 드러나면서 국가는 부재한 것이 아니라 민첩하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참사 발생으로 국민적 슬픔과 분노의 기운이 일어나자마자 정부는 즉각 애도 기간을 선포한다. '추궁이 아닌 추모의 때'라는 수사언어가 구사되었다. 한편, 서울 시청 직원들은 유족들을 맨투맨으로 밀착 보호하였다. 유족들은 의문과 아픔을 나눌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장례는 각각 개별적으로 지체없이 진행되었다. 이름도 영정도 없이 설치된 분향소는 '애도의 포괄적 추상화'였다. 시민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관념의 인류를 사랑하는 자같이 되고 말았다. 경찰이 동원되었어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던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족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무능을 자처한다. 그러나 이 참사는 불가항력이 아닌 정부의 선택이었음에 드러난다.

10.29 당일의 경비 임무는 두 가지였다. 정치적 집회시위와 할로윈 축제. 서울경찰청의 기동대 병력은 집회시위 경비에만 배치된다. 각별히 대통령 용산 집무실 진입로에 견고한 차단선 구축을 명하며 병력은 계속 추가배치 되었다. 현장 경찰들도 의이해할 정도였다. 한편, 용산 경찰서 정보과에서는 할로윈 경비 계획서가 기안되었지만 과장에 의해 기각된다. 기안자인 세월이 혼자라도 나가보겠다고 하지만 묵살된다. 서울경찰청은 “각 서에서 알아서 하라”였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경찰서는 연례적 임무였던 할로윈 대비는 잇고 집회시위 대비에 전력해야 했다. 즉 계획수립과 실무 단계에서 이태원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포기한 것은 선택이었다.

과거 정부의 '코드 레드'(code red)와 현재의 지휘 책임

5공을 겪은 세대에게 떠오르는 아픈 기억이 있다. 1982년 이른바 '봉황새 작전'. 독재자의 경호실장 장세동은 전두환의 제주 방문 경호작전을 위하여 특전사 707대원들을 배치하였다. 극도의 악천후로 팀장은 작전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보스의 심기까지 경호하는 측근 실세는 강행을 명령한다. 결국 수송기의 추락으로 53명의 대원이 모두 사망한 바 있다. 그에게 코드레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권력자의 경호를 위하여 얼마든지 포기될 수 있다, 아니 포기하라”였다.

이태원 참사 사후 조치에서 나타나는 전체 경찰조직의 방만함은 개인적인 기강해이로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저녁 시간 집회시위가 마무리되었을 때, 경찰 지휘부는 자신들이 마땅히 배치해야 할 병력을 보내지 않은 이태원이 어떻게 되었을까 염려했어야 했다.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이 응대조차 못할 112 신고가 수십 건이나 될 만큼 중과부적의 곤경 속에서 애태울 때, 서

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모두 시위 관리가 무탈한 것을 만족한 임무 종료로 여기고 있었다. 정위치 하지 않았던 서울경찰청의 상황실장과 용산경찰서의 상황실장도 역시 동일한 자세를 보인다. 이처럼 전 조직을 관통하는 권력 해바라기의 행동 양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얼마든지 포기될 수 있다”라는 내부 지침, 즉 비공식적이나 명시적인 지침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묵시적 코드가 형성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조직의 문화와 가치, 심리적 관행, 내부적 작동원리를 만드는 것은 법적 규정 관리를 넘어선 리더의 영향력이고 정무적 책임이다. 그럼에도 지금 대통령은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지 않소?”라고 통친다. 그는 이 코드가 자신을 지켜주는 현실적 방어기제라 여기고 있는 듯하다. 미국 대통령 닉슨을 사임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우드워드(Woodward) 기자도 이 점을 발견했었다.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All the President's men)이라는 영화에 나오듯이,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대통령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은 다르다. 성서는 말한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잠 29:14).

FAITH & LIFE

✍ 글쓴이 오형국



서강대 사학과, 총신대학교 신대원, 풀러신학교 등에서 공부했고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총무, 숭실대 겸임교수, 풀러 K.D.Min 지도교수로 사역했다. 공동대표인 청년신학아카데미는 “신학이 전도한다”라는 생각으로 신학 콘텐츠와 심화훈련 코스를 개발한다. 저서로는 <갈방, 신학과 인문학이 만나다>, <미래전환기 청년사역을 위한 대안신학적 모색>(공편) 등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 슬퍼하는 이의 고통을 우선하는 위로와 연대, 그리고 중보

김현아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국장, 청년 활동가)

“다시는 저와 같이 자식을 먼저 잃는 부모가 생기지 않도록 굽어 살피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여 일 되던 즈음 개최했던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에서 한 희생자의 아버지가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며 높아진 목소리로 발언을 하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단상에서 내려가셨다. 그리고 이후에는 ‘4.16 합창단’이 올라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연대하는 메시지를 ‘네버엔딩 스토리’와 ‘잊지않을게’라는 노래에 담아 불렀다. 나는 차마 눈물 흘리는 것도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다 생각을 하며 쓰리고 먹먹해진 마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바로 얼마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딸을 잃은 아버지가 말도 못할 고통 속에서도 앞으로 다른 이들은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수년 전 발생한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이 또 다른 참사의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노래를 부른다.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또 다른 희생자이다. 그리고 사회적 참사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크고 작은 충격과 변화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참담한 사건이 일어난 뒤, 이웃 시민으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민,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슬픔과 황망함에 일상을 잃은 유가족,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는

청년을 포함한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 사회 곳곳의 고통과 슬픔의 현장에는 ‘어떤 위로의 순간’들이 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갈등 속에서 몸과 마음이 상한 주민들, 사측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길거리에 나와 단식하던 노동자들, 자연과 평화의 아름다움을 지키려 천막과 보트를 가지고 철조망과 군대와 맞서는 제주 활동가들, 사고와 고립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장애인들, 그 밖에도 여러 이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누군가 잠깐이라도 외로운 자리를 함께 지켜주고,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 자신을 대신하여 기도해주고, 한마음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쳐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특히 상실과 죽음의 고통을 맞게 된 이들에게는 함께 애도하고 중보하는 심리적, 영적 연대가 중요하고, 그 고통이 사회적 구조에 기인하거나 개인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공동체적 책임으로 연대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기윤실’과 같은 기독교 시민운동단체는 그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정한 어떤 이들이 ‘그만’하라고 하는 기도회나 기자회견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이다. 그곳에서 위로와 회복의 순간, 책임과 변화의 물꼬를 발견하기도 하니 말이다.

이 땅에 인애(仁愛)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인애를 그 백성들 또한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복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는 착한 행실로 하늘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다. 틈 없이 계속해서 신자들과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여지없이 인애와 위로를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순간에 사랑 하는 이를 영영 보지 못하게 된 이의 그 아득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슬퍼하고 있는 이의 상실과 좌절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마음을 기울이고 그가 고립되거나 숨겨지지 않도록 손을 잡되 그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 희생자들의 삶의 흔적과 그 존재의 존엄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과정의 진실을 밝히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슬픔을 당한 이웃이 소외되거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로를 넘어 하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는 중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참사 이후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잔혹한 곳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된다. 이번 참사는 국정조사특위 활동에서도 나타나듯 일어나지 않거나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고, 참사를 다루는 정치인들과 행정 책임자들은 상황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변명하며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심각하게 직시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으며, 일부 시민들은 청년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을 방문한 것 자체를 비난하거나 청년 세대 전체를 싸잡아 폄하하기도 했다. 참사 자체의 충격만큼이나

참사 이후 이러한 국면에서 청년들이 느낄 충격은 거대한 힘으로 이들을 위축시키고 절망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 나라와 공동체에서 오늘의 안전함과 내일의 희망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반복되는 경험은 당연하게도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 불신과 외로움을 증대시키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각자도생'만이 최적인 생존 방식이라고 잘못 믿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 그리고 참사와 관련 있는 이들을 뉴스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또는 무리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각 존재마다 이름이 있고 가족과 친구가 있으며 사연과 꿈이 있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때서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서로 모른 채하거나 사라질 일로 여기지 않고 동료 시민, 이웃에게 무정하게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가 먼저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고, 낮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존중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존중하며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 착한 행실이 빛처럼 퍼져 대한민국 사회가 불신과 불안으로 뒤덮인 곳이 아닌 서로를 향한 인애와 연민과 연대로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FAITH & LIFE**



✍ 글쓴이 김현아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10년 차 활동가이자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경희대 공공대학원에서 '시민사회 NGO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청년센터 WAY' 운영위원,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이사,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집행위원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고단한 모든 이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청년, 교회, 사회의 어그러진 이야기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예수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 : 이태원 참사를 돌아보며

정명현 (서울대 서양사학과 4학년)



그날의 기억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10월 30일, 새벽 2시가 조금 안 된 시점이었다. 할 일을 마치고 잠을 청하기 전 연락을 확인하던 중, 전날 밤에 있었던 사고로 수십 명의 사람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비보를 접했다. 어안이 병병한 채 재빨리 인터넷을 켜 사고의 경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바람과는 달리 사상자의 숫자는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짝막한 회고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는 참화(慘禍)를 당한 대상이 청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159명 중 20대는 10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30대 사망자 수까지 고려하면 약 85%에 육박한다. 이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던 꽃다운 청년이었으며, 누군가의 자녀이자 친구였다. 특별히 참사의 자리에 소중한 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었

겠다고 생각하니 개인적으로 더 가슴이 아리다.

또한 '이태원 참사'가 정쟁의 도구로 비화한 점도 문제였다. 사고 직후의 초동 대응은 비교적 잘 이루어졌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 관계자의 실언과 사고 당시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야당은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더하여 참사자의 명단 공개에 관해서도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 나갔다. 사고를 수습하는 데에 신경을 써도 부족할 판에 펼쳐진 정쟁은 다수 국민을 피곤하게 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깊은 침체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이태원 거리가 활기를 잃고 텅 비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모두가 그 장소를 다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민들과 상인들은 지금도 희생자

들의 비명이 들리는 것만 같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출산과 고령화, 취업난과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살아가기조차 버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이태원 참사'는 치명타였던 것 같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모두가 슬픔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그렇기에 주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함께 우는 것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라는 바울 사도의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구절일 것이다. 때로는 상투적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이 말은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긴요하다. 우리 주변에서 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전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두 손 붙들고 들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특별한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면 깊은 곳에 숨겨둔 아픔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절망 중에서 희망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 하나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나타나 반드시 그를 도우신다(시 42:5).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순식간에 바뀐다. 그분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사 43:19). 우리마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도대체 누가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의 목소리를 전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주께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마른 뼈와 같이 변해버린 이 나라에 생기를 더하시고 큰 군대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

면서 말이다(겔 37:10). 이 소망의 외침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소망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신다(요 14:27).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의 기억으로 지금도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하며 그분이 유일한 '살롬'이 되심을 알려야 한다. 아파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곧 참된 위로이기 때문이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목사님의 시 <선한 능력으로>(Von guten Mächten)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은 밤에도 빛날 것ですよ." 우리는 안다. 예수님만이 '이태원 참사'를 이겨낼 유일한 답이 되신다는 것을. 복합적인 절망이 교차하는 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름에 희망이 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당신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통해 참된 위로를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정명현



서울대 서양사학과 4학년이다. CCC 순장과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표로 섬겼고, 매주 1회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부 멘토링 봉사를 했으며, 판교 예복교회 청년으로서 중고등부 교사와 주일예배 방송팀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졸업 후 육군 전문특기병(어학병)으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다.

참사와 참된 위로 : 이상갑 산본교회 담임목사 / 청년사역연구소 대표

현재 한국의 사회와 교회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로 인하여 다수가 애통해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동일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경적으로 어떤 정리와 대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유가족과 아파하는 수많은 시민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오랫동안 청년 세대를 섬겨오신 전문가이자 지역교회 목회자이신 이상갑 목사의 시각을 통해 정리하고 이해하며, 그 혜안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일시 2023년 1월 6일(금) 오전 11시
장소 산본교회 목양실
인터뷰어 이현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청파감리교회 청년)
사진 & 정리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현규 목사님께서서는 한국 교계에서 청년들을 오랫동안 전심으로 섬겨온 대표적 목회자입니다. 그동안 어떤 섬김이 있으셨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상갑 저는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청년대학부를 줄곧 담당하면서 양육, 훈련,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동시에 학복협(학원복음화협의회) 교회실행위원장과 협동총무로 청년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을 했었지요. 10년 전부터는 청년들과 사역자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멘토링 해주는 ‘청년사역연구소’를 세워 섬겨왔습니다. 그 결과로 <슬래임>, <바이블 정신>, <결국 말씀이다>라는 책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산본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75년 된 전통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개혁하고 갱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규 청년들에 대한 사랑이 평소 남다른 목회자로서 10.29 참사 소식을 접하고 충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갑 10월 30일 주일 1부 예배 때 한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았구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검색했지요. 충격 속에서 2부, 3부, 4부 주일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났나”라는 생각에 참담하고 답답하고 또 알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 지금 정부의 방향과 가치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세월호를 경험했었잖아요. 그 아픔을 경험했으면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대응 태도와 자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네!”라는 생각도 했구요. 159명이 그렇게 희생된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지요. 사회안

전망이 무너진 것이고 우리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희생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태원이라는 곳은 누구든 갈 수 있는 데고, 그 현장에 있었으면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현규 이번 참사는 핼러윈(Halloween)이라는 축제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원이 켈트족에서 온 것으로서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꾸미는 풍습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상갑 핼러윈이 죽은 이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 의미가 있기에 저도 마땅히 경계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축제 문화적 측면에서는 너무 경직된 접근보다 청년 문화의 요소를 잘 살려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지켜보니까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대신, 교회가 그냥 축제 문화적 요소를 살려서 그 자체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으로 삼는 것을 보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우리가 문화를 세상의 것과 기독교의 것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현상에 대해서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실 진짜 성숙이 어렵거든요. 또한 우리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배척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간다면 저는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화 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현규 목사님,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요?

이상갑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문화에 대한 세 유형의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혼합 유형인데요. 세상 문화와 기독교를 그냥 혼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는 선 긋기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같아지면 결코 변혁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단절 유형인데요. 세상 문화에 담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느 아파트 단지에 심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담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부자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였고, 다른 한쪽은 가난한 분들의 임대주택이었어요. 가슴이 아파서 심방을 간 분께 “권사님이라도 계속해서 저담 없애자고 건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은 임대주택 아이들을 아예 못 오게 했는데, 이는 아파트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말 품격 없고, 가난한 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생각해요. 담을 쌓는 것이 아닌 분리고 단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로 세상이 이기적 목적으로 만든 온갖 담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변형 유형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한 청년이 어느 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 폭탄주 마시는 자리를 자주 가게 되는데 그만두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 두면 너는 세상과 문화적 단절을 선택하는 거야. 물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폭탄주를 마시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어서 변화시켜 보라. 그러면 때로 손해를 보고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갈 가치는 있다.” 저는 회식 자리에 사비로 ‘컨디션’을 사서 돌리라는 조언도 했고, 그래서 결국 남았는데요. 1년 정도가 지나니까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믿고 맡길 사람을 찾을 때 점점 이 청년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누구보다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이현규 교계에는 이번 참사에 여러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희생된 젊은 영혼들에 대해 우선 추모해야 한다는 입장, 또 한편으로는 귀신을 부르는 이방 축제에 가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갑 이분법적 사고인데요. 우리 기독교가 균형 감각을 잃은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생명이 죽었다면 신앙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빈부귀천을 떠나서 애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인간적인 거예요. 그 죽음이 헬러원 축제 때 일어났다고 해서 비판을 먼저 한다면 이미 인간적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길”(롬 12:15)에서 있는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해 보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159명 중에 내 형제, 자매,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함부로 돌을 던지고 비난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안도현 시인의 시구절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사고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현규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참사 유가족의 상처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보듬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로 표현하라 하고, 조의문구 없는 ‘근조 리본’을 달도록 하며, 책임과 정보 공개를 회피하고, 피해자들 간의 만남을 제한시키려는 정황 때문에 참사를 대하는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샀지요. 물론 책임을 국가와 공무원들에게만 돌리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지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갑 진정성은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지요.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상처를 계속 찌르고 더 아프게 하지요. 저는 이번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대하는 책임자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권력의 실종을 본 것

같아요. 말씀대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지요. 또 사건의 해석도 독점하려 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소통하려 하기보다 규정된 틀 속에 가두려 했지요. 그 때문에 국민은 이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할 기회와 잘못을 수정하고 고칠 기회를 놓치고, 그 모든 것이 그냥 삭제돼 버리고 배제돼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비슷한 사건이 얼마든지 또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도 새로운 대안 시스템을 다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국가와 권력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봅니다. 국가 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애민의 마음이 우선 있어야 하지요. 유가족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우선 있어야 하는데, 계속 통제, 통제로 이어졌죠. 정말 비통하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건강한 시스템적 보안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와 시민사회라도 제대로 함께 고민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또 유가족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현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재난을 당한 우리 주변의 ‘우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위해 다가가는 데 필요한 바른 성경적 선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상갑 저는 성경에 나오는 ‘불쌍히 여김’(시 103:13)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반복해서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나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소수 특권자 중심의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셨던 일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굶주린 회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밥 한 끼를 먹고 가게 하신 일, 귀신 들

린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일, 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신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는 '팔복'의 영성과도 관련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손해 보고 핍박받는 자,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복의 본질적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쌍히 여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이현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참사와 같은 재난의 한복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자'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떤 구체적인 실천과 삶의 내용이 가능할지요?

이상갑 헨리 나우웬(Henri Nouwen, 1932~1996)은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치유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제자들의 배반,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 등 정말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의 모델을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다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희망이 되고 변혁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고아원 봉사를 계속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도 잘 열지 않아서 고민하다 어느 날 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아이들과 매주 하루씩 자면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밤늦게

공부를 가르기도 했는데요. 결정적 변화가 언제 일어났냐 하면 그 아이들 중 한명이 자기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위로도 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냥 같이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 때부터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는 말과 위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듯이 광야로, 눈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좋겠다는 것이었지요.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곳은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현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갑 청년 때는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숲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다!" 터널은 반드시 때가 되면 출구가 나옵니다. 또 산에 가보면 등산로가 나 있죠. 처음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을 또 다른 사람들이 걸어감으로써 등산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저는 청년들이 말씀을 따라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시도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절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FAITH & LIFE**

은혜에 힘입어 영원한 청춘으로!!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오래된 노래가 있다. <아니 벌써> 이 노래를 떠올리니
 컷가에 흥겨운 리듬이 들려오는 듯하다. 아니 벌써!
 내가 은퇴한 지가 2년이 되어가다니. 그렇다. 독일 유
 학을 마치고 귀국한 때가 1993년도 여름. 귀국하자마자
 '강사 자리' 구하느라 동분서주, 혹 어느 학교에 초
 빙 공고라도 나면 전국을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갔다. 그
 령게 7년 세월이 흘렀다. 아, 당시에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에 임용되지 못한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
 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비정규직'의
 시간을 인내했다. 간간히 의심이 들었다. 믿음은 변명
 이고 내 의지를 붙잡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희망고
 문'을 하는 것은 아닌지. 왜 내가 '정규직' 교수가 되어
 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재야학자로 감
 사하며 학문의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히 11:8) 내 경우도 그러했다. 중
 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

니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가면 되는 것이었다. 어떤 면
 에서 팡야 생활이 아니라 말할 수 없으리라. 강사 기
 간이 길어지고, 아이들은 자라나고, 가게의 씬씀이가
 절약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다른 길로 가
 게 될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학문의 길로 부르신 주
 님께서 어떤 부르심으로 인도하실지 중도에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를 알게
 되었다. 당시 손봉호, 이만열, 김정옥 교수님들께서 활
 약하고 계셨다. 강영안, 신국원 교수님의 안내로 가입
 하여, 어느 해에 '기학연' 연구원으로 공식 경력을 쌓
 는 은혜까지 입었다. 실제로 독일 유학을 통해 알게 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 '기독교 문예학', '기독교 문화
 연구' 등은 융합연구라는 분야로 공부는 하였지만, 광
 대한 학문의 숲에서 첨예한 학문성과 깊이를 정립하
 지 못하고 '어찌다'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린 느낌이었
 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방대한 분야였으며 또한 귀
 국 후 대학에서 만난 강단 현실은 나를 당황하게 하였
 다. 이때 나의 삶과 학문을 믿음 안에서 다시 정립하게

해준 단체가 바로 '기학연'이었다. 이와 함께 '기독교 대학철립동역회'의 양승훈, 조성표 교수님들과의 만남은 그리스도인 학자로서 비전을 가다듬게 해주었다. 내 인생에 참으로 귀한 계기였다. 여기서 웨슬리 선교사님의 '귀찮을 정도'의 도전은 나를 각성케 하였음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선배님들과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현재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삶과 경건, 신앙과 학문"의 기치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건실히 활약하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고 감탄하지 않으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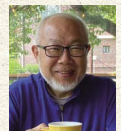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아쉽게 여기는 점은, 일단 학교에 들어가고 보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다.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의 진급, 여기에 여러 성과와 실적(논문, 저술, 교육, 봉사, 취업 등)을 쌓아야 하는 '조직사회'의 요구는 서서히 이기적 삶의 방식으로 변질이 되게 했다. 교수임용이 되면서 학교에 치중하게 되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내의 협력 사역에 크게 힘쓰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는다. 또한 후배 학자들과의 창조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내하지 못한 과오는 정말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 단체 안에 활동적인 분들이 많으신데 기독교 학문과 세계관의 넓은 세계에서 훌륭한 협동 작업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IT, AI, 메타버스(Metaverse)가 삶의 구조에 깊이 관여한다. 인간 본연의 전통과 유산에서 그 본질이 뒤바뀌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인류가 등장하고, MZ 세대는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부하는 저항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신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구(舊)인류 급으로 취급된다. 그리스도인은 미개인, 신

양인은 야만인처럼 조롱당하는 호모 데우스(Homo Deus)가 우세종인 세기로 전환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비인간, 반인간의 세기적 전환점에서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록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과 소망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며 증거할 것인가? 나라와 백성이 백척간두에 선 듯 흔들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위장된 평화를 견어내고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드릴 것인가!

그런데 아니 벌써! 현역에서 은퇴하였다. 그것도 정년퇴직 후 2년 차라는 명부에 등재되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원으로 '청춘'의 삶을 다시 행진해 보고자 한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기억에 남는 어록이다. 나는 고백하고 싶다. 노병은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다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3:14)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이 불붙고 있는 한 청춘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뇌와 열정이 있는 한 청춘이다. 주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청춘으로 푯대를 향해 전진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묵묵히 "오늘과 내일과 모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눅 13:33). **FAITH & LIFE**



글쓰기 추대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권력과 신앙: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수저가 불을 만날 때

장요한 (장신대 일반대학원 선교신학 석사과정(Th.M))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오심으로 필자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신학을 하셨다. 비록 어머니께서는 질병 때문에 신학의 길을 다 마치지 못하셨지만, 어머니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며 필자는 자연스럽게 신앙인이 되었다. 중학생 때 필자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보았고 그의 삶에 매력을 느꼈다.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으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언한 가장 활발한 선교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선교사가 되기로 생각하고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로, 지금 필자는 선교신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신학자가 되려는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필자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 결정을 주변 사람에게 말하자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했다. “왜 굳이 그런 힘든 길을 가느냐, 그럴 거면 학부를 신학교에 가지 왜 일반대학교에 갔냐,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너무 아깝지 않냐, 쓸모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반응이 요즘 점차 많아지고 있다. 세상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되려는 결정에 냉담하다. 일반학생과 신학생 모두 같은 학자의 길을 걷는데

도 일반 학문을 배우는 학생에 거는 기대와 신학을 배우는 학생에 거는 기대가 다름을 체감한다. 세상에서 목사의 이미지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언론에서 목사의 추문이 보도되고, 드라마 <오징어게임>, <수리남>, <더 글로리> 등에서 보이듯이 대중매체에서도 목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이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그리스도인 청년조차도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태이다. 또한, 교회가 쇠퇴일로를 견고 있기에 목회자들이 전임 사역지를 구하는 일도 어렵고, 설령 사역지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는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목회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목사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역자로 사는 일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도 금수저여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하지만 필자는 금수저가 아니다. 많은 일반적인 사람처럼 흙수저를 문 사람이다. 지금껏 청년 대부분이 가지 않는 길이자 매우 이질적인 길인 신학자의 길을 이야기해서 많은 청년 독자는 필자가 공상과학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수저론’이라는 지점에서 많은 청년들이 신학자의 길을 가려는 필자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은 금수저가 되지 못함을 한탄하며 흙수저인 자기 삶을 비판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올(All)포 세대’가 되거나,



흠수저이지만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 치며, 지치고 상처투성이인 인식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 가다가, 어쩌다 여행하거나 명품선물을 받은 일과 같이 남 보기에 부러울 만한 일이 생기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사진 찍어 올리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삶을 산다. 아무리 일해도 이번 생에서는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할 거 같은 상황 속에 로또나 주식, 비트코인 등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며 큰 거 한방을 기대하기도 한다.

이렇듯 많은 청년들은 인생을 단번에 역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는 듯하다. 지난 2022년에 방영된 웹툰 원작 드라마인 <금수저>와 <재벌집 막내아들> 모두 그러한 현재 젊은 세대의 꿈같은 희망을 잃어낸 작품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정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거나 남이 가진 금수저를 빼앗아서라도 금수저를 쥐고 있어야만 이번 생이 좋은 생인가? 그렇지 못하고 흠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오르지도 못하면 이번 생은 망한 생인가? '수저론'과 같은 신(新)계급론이 우리 삶의 가치와 세계관을 주도하도록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필자는 흠수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불을 생각했다. 초등학교 때 도자기 만드는 체험학습장에 간 경험이 인상 깊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흙은 불을 만날

때 아름다운 도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에 불의 이미지로 묘사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때 교회에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러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실패자였던 제자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필자는 이 일이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믿는다. 실패자처럼 보이는 흠수저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불을 받는다면 명품 '도자기 수저'가 되어 귀한 삶을 살 것이다. 또한, 이 불은 '흠수저'에게만 소용 있는 것이 아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불이 은과 금을 연단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금수저 혹은 은수저를 문 청년이라도 성령의 불을 받지 않는다면 순금과 순은이 될 수 없다. 금수저라도 불을 만나지 않는다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수저를 물고 있는지 불을 만나자! 그 불이 자신의 수저를, 자신의 삶을 좋게 만드실 것이다. 자신이 어떤 수저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불을 만났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FAITH & LIFE**



글쓴이 장요한

장신대 일반대학원 선교신학 석사과정(Th.M) 중에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선교적 교회론'과 '장소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이다. 서울대 경제학 및 정치외교학 학사(B.A)와 장신대 신대원(M.Div)을 졸업하였으며, 예장(통합) 교단의 서울관악노회 소속 광동교회의 교육전도사, 서울대 기독교 대학원생 독서모임 멤버이다.

나의 하나님

최베드로 (중앙대 식물생명공학과 석사과정)

나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부모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때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었지,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지 못했다. 다만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도와 신앙교육으로 자란 신앙의 뿌리가 있었기에 타지 고등학교에 가서도 아침 큐티 시간을 개설하여 학우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며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학 진학 후 부모님과 교회로부터 배워온 신앙이 점차 무너지는 것을 체감하였다. 스무 살이 되어도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던 나는 학과 친구들과 술자리에 어울리며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기도 하였다. 다행인 것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곧 뉘우쳐 짧은 방황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평일에 자주 있는 예배와 교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귀국 후 입대하면서 그 울타리를 떠나자 다시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졌다.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중심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두고 살고 있었다. 그러자 생활도 신앙 중심에서 나의 이익으로 바뀌어 갔다.

마침내 나는 대학교 1, 2학년 때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

을 들었던 것에 회의감이 일었고 군 전역 후 아버지께 “주일예배 말고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때 나의 삶의 목표라는 것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 성공일 따름이었다. 그러한 마음으로 편입한 학교에 다니기 위해 안성으로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교통편도 잘 되어있지 않은 지역에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운 한 달을 보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 아무도 없었다. 도시에 있지만, 무인도와 같은 원룸에서 아침마다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당시 주일예배는 아버지께서 담임목사로 계시는 교회의 원격 예배로 드렸는데, 더는 고독을 견딜 수 없어 주위에 있는 교회를 찾던 중 하나님께서 중앙대학교교회 토요대학예배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곳에서 만난 한 형(兄)을 통해 2021년 8월에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어떤 특별한 사건도, 현상도 없이 ‘그냥’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다. 이때껏 내 삶을 돌아보면 신앙이 나에게서 그저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만 느껴졌지,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캠퍼스에서 만나게 된 한 그리스도인 형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으며 교제하며 사는 삶을 보여주었다. 그 삶의 특별한 비결



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다. 나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이 친히 교제하기 위해 선물로 주셨으며, 그 안에 있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십니다”라는 말을 그전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몇 번이나 들었지만 와 닿지 않았다. 그런데 그제야 그 의미가 와 닿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이쯤 되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까지 ‘나’ 중심적이며, 나의 ‘의’를 위한 신앙 생활을 해왔다는 것도 알았다. 말씀에 순종한다면서도 사랑이 없었고, 행함이 있었으며 진심이 없었다. 세상의 미혹에 빠져 그 괴리감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신앙도 무너졌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 교제를 가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진정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되었다. 이 사건을 시점으로 삶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앞서 말한 그 형의 권유로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가정과 형제자매, 주변 이웃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을 열게 되었다. 당시 나는 미생물을 연구하던 실험실에 아침 9시 반에 출근해, 저녁 8시에서 10시가 되어 퇴근하였

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으로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힘든 실험실 생활 속에서도 즐거움이 충만한 내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던 믿지 않는 동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은혜도 누렸다. 교수님께서 세상의 관념으로 타협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주었을 때도 그것을 담대히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까지 내디딜 수 있었다. 나에게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의 자리였다. 예배가 이제는 나가지 않으면 죄책감을 주는 자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주변 형제자매들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날마다 목상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가며 기도로 하나님께 구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 119:9)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날마다 고군분투한다. 물론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고 세상적인 고민이 스며들어 근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견뎌내며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싸워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길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최베드로

대구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중앙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과로 편입해 학사를 취득하였으며 올해 식물생명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현재 안성제일장로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계명대학교에서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중앙대학교에서는 중앙대기독교학생연합회(CUSCM)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다.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삶

김보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이들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민 9:22).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친숙한 이야기이고,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에 관한 말씀으로 수없이 들어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며칠 전엔 “이들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라는 구절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언제 머무르고 떠날지 스스로 정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삶. 머무는 것이 하루인지, 한 달인지, 일 년인지 모른 채 꾸러가야 하는 삶. 그저 떠오르는 구름만 보고 사는 것. 그런 삶은 실상 불안하고 막연한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막막하게 살면서 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긴 어렵다. 통제권을 잃은 인생이 불안해 떨고, 불평을 터뜨리고, 그런 자신을 꺾어 순종하는 연습을 솔하게 하지 않았을까.

요즘 청년들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이라고 믿어왔던 삶의 양식,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가고, 졸업해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집과 차를 사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들. 이런 삶의 형태는 이미 보편성을 잃었다. 많은 청년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나 통념은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청년들은 늦어진 사회진출과 혼인 연령, 치솟는 주택가격 앞에 한없이 불안하고 초라해진다. 이 나이쯤엔 무

언가를 이루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언제쯤 취업이 될지, 결혼은 할 수나 있을지, 삶의 안정은 언제 오는 것인지. 그것이 올해일지, 내년일지, 아직 몇 년이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구름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린다.

안정적인 직업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청년 법조인들의 삶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다른 직업에 비해 한 직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몹시 짧다. 애초에 정규직 채용을 찾기 어렵기도 하지만, 비교와 경쟁이 치열한 집단인 탓도 크다. 어려서부터 많은 경쟁을 뚫고 와서인지, 마치 몸에 밴 습관처럼 다시금 끝없는 경쟁으로서 로를 몰아넣는다. 그러니 학위이든, 자기계발이든, 혹은 이직이든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불안해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력서만 보면 공백기가 거의 없는 탓에, 사람들은 흔히 나를 ‘무엇이든 계획대로 성취해온 사람’일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대하곤 했다. 하지만 내게도 이력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과 나만의 광야의 시간이 있다. 정착이 허락되지 않은 삶, 오늘과 같은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다음 단계는 언제쯤 열리는 것인지도 무지 알 수 없던 시간. 수없이 기도해보아도 매마른 침묵뿐이라 불안하다 못해 억울함이 사무쳤던 나날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던 주권을 도로 찬탈해 오려 했



던 시도들. 하나님과 지난한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에 생긴 우연한 발자국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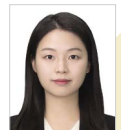
20살 무렵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삶은 그럭저럭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었다. 과학고를 거쳐 공대 진학. 어느 선배들처럼 전공 분야의 어느 언저리에서 성실한 연구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성은 달랐다. “네가 예측할 수 있고 모두가 예상하는 삶, 그런 삶 말고 다른 삶을 살아볼래? 남들이 말하는 가치나 방식이 아닌 내가 제시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볼래?” 재고의 여지가 없는 제안이었다. 그 길로 진로를 꺾고 서둘러 취업했다. 꼭 집어 취업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대학원이 아니라면 취업 밖에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따라서 첫 직장이란 ‘진짜 진로’를 찾기 전 임시로 머물 장막과 같은 것이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빠르면 3년, 길면 7년으로 예상했던 첫 직장에서 8년 반을 보냈다. 첫 음성과 달리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위한 청사진이나 그럴싸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적당히 포기한 채 정착하는 삶을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직장과 교회를 시계추처럼 오가며 오직 기다리는 일 뿐이었다. 그사이 허망하게 소비되는 젊음이 억울했고, 그럴싸한 학위와 경력을 갖게 된 동기들, 결혼해 가정을 이룬 친구들과 사이에서 홀로 뒤쳐진다고

도 느꼈다.

당시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정체되어 있다고 느꼈지만, 돌아보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묵묵한 기다림이었다. 스스로 인생을 너무 귀히 여겨,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몰두되어 있던 딸, 세속적 허영과 영적 허영을 모두 채울 보람직한 자리를 달라 생떼를 쓰던 딸의 시선이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향할 때까지. 가나안은 남부럽지 않은 경력이나 삶의 안정이 아닌 하나님 자체라는 걸 알기까지.

“어차피 로스쿨을 갈 거였으면 진작 가지 그랬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앞선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직업과 안정이 우상이었던 내가 이 무한 경쟁 집단 속에서 얼마나 자신에게 몰두한 삶을 살았을지 알만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했다.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포장된 이면에 교묘히 세속적 가치를 좇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본다.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도 여전하다. 그러나 점점 “오늘 행진을 할지, 진에 머무를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다. 떠오르는 구름만 보고 사는 삶이 단순하고 편안하다고 느낀다. 처음 부르신 약속, 남들이 제시하는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는 삶은 그런 것이었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보혜

대전에 있는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이다. KAIST에서 전자공학 학사를 취득하고, 삼성전자에서 8년간 기획, 협상 업무를 수행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현재 사랑빛교회 청년부 리더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

결국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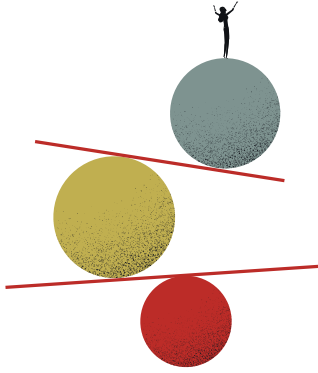
함규성 (원광대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나는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소망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며, 결국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대학 학부 시절 DFC(제자들선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실력을 키우는 훈련받았다. 4학년이 되어 진로를 선택할 때쯤 학과 카톡방에 원광대학교 전산실 인턴모집 공고가 눈에 띄어 서류를 준비해 지원하였다. 그러나 예정에는 없었던 면접 일정이 생겼고, 교회 수련회가 그 날짜와 겹쳤다. 나는 당시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포기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현재의 대학원 길로 인도하신 것 같다. 면접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현재 나의 지도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나의 지원서류를 보았으며 당신의 연구실에서 연구해보자고 제의하셨다. 그때부터 나의 연구실 생활이 시작됐다.

또 얼마 후 서울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세미나를 참가했는데, 어느 대학교 교수님께서 전공기술을 발표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 교수님께서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고 비전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다. 실력도 있으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였다. 나는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기에 대학원 진학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었다. 지방이 아닌 곳에 더 좋다는 대학원들에 입학할 자격조건과 기회가 있었으나, 결국은 원광대에 남는 선택을 하였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섬기던 전주 어느 교회와 익산에 근거지를 둔 DFC를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더 실력이 좋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싶지 않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이 선택에 한몫하였을지 모르지만, 섬기는 교회와 DFC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다. 그렇게 해서 원광대 대학원을 선택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10년 뒤 교수가 되어 지성인들을 가르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30년 뒤 북한에 미션스쿨을 세우는 선교사가 되자”라는 비전을 품게 해주셨다.

그러나 나는 석사졸업 후 박사과정 3년 차 시절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만났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컸던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나 싶다. “과연 지방대 박사과정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서울의 다른 이름난 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은 좋은 연구와 좋은 논문들을 내며 경력을 쌓고 있는데, 나는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나를 사로잡았다. 전에는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지방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현실을 다시 보니 “과연



나에게 미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후 모든 연구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삶의 의욕도 없었다. 그렇게 우울증에 몇 개월 빠져있었다보니, 결국 공황장애조차 내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의지하던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래서 하게 된 상담과 이야기 나눔으로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여러 사람과의 이야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였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마음 중에는 현재 맡은 일을 책임감 없이 내팽겨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책임감 있게 몇 개월 남지 않은 과제만은 끝내고 쉬면서 박사과정을 더 고민해 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도교수님께는 현재 마음 상태와 주어진 과제만은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더니, 이제까지 지나온 과정들이 너무 아까우니 쉬지 말고 다음 학기에 바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셨다. 또한 다른 어느 교수님께서도 졸업 이후에 같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며 함께 실적을 쌓아보자는 제안을 하셨다.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어느덧 나는 마음의 우울증세와 공황장애에서 벗어났고, 졸업 시기도 더 빨라졌으며, 실적 걱정도 덜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계획했던 경로와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

대학원 생활과 우울증의 시기라는 광야를 겪으면서,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꺾이더라도 당신의 계획안에서 나를 인도해가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 넘어져서 아픔에 허우적거릴 때 나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며, 주신 비전을 다시 이어가게 하신다. 만일 힘들어 전혀 없는 환경만을 주셨다면,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대학원 생활을 통해 나에게 친히 부족했던 사회적 눈치 및 감각, 인내력, 정직함 등을 성장시켜주셔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과정임도 깨달았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박사가 되게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 학위를 가진 자에게 맡기실 사역들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올해 여름 박사졸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한 길과 피할 길을 주시며, 마침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함규성

원광대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전주 사랑의교회에서 찬양팀장, 팸장, 교사로 봉사 중이며, 익산 DFC(제자들선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다. 주어진 환경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힘쓰려고 노력한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위한 영화 〈로봇, 소리〉와 〈힘을 내요, 미스터리〉을 중심으로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서 일어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192명의 희생자와 14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대한민국의 역대급 사회적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우울증을 앓던 50대 남성이 인생을 비판하며 일으킨 방화였지만, 당시 도시철도 관계자의 미흡한 위기 대응 또한 참사의 원인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10월 29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만든다. 분노와 자책, 슬픔과 원망 등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만든 사건에 대해 한국 영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슬픔을 이기는 사랑의 기억

이호재 감독의 〈로봇, 소리〉(SORI: Voice from the Heart, 2015)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실종된 딸을 찾아 10년 동안 전국을 헤매고 다닌 아버지 해관(이성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딸 유주(채수빈)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사람과 단서를 찾아 전단지를 돌리며 떠돌던 중 바다에 추락한 인공위성 기능의 로봇을 건지게 된다. 세상의 모든 전화를 감청하고 녹음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로봇에게 ‘소리’(심은경)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유주의 통화 기록을 쫓게 된다.

세상의 모든 음성정보를 가진 로봇 소리는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해관에 의해 어린 아이의 옷을 입고 유모차에 태워져서 다니며 나사와 국정원 직원을 피해 다닌다. 비록 로봇 소리와 해관은 붙잡히게 되지만 딸 유주가 죽기 전 아빠에게 남긴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녹음 파일을



〈로봇, 소리〉

전해 듣게 됨으로써 해관의 모든 갈등은 사라지게 된다. 국정원의 손에서 탈출한 로봇 소리는 새로운 음성 주인을 찾아 사막을 여행하기 시작한다.

‘로봇 소리’는 인간 구원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타포처럼 읽혀지기도 한다. ‘로봇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 아니라 죽음과 죽음의 위기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의 이미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화 〈로봇, 소리〉는 딸의 음성통화기록을 가진 로봇을



〈힘을 내요, 미스터리〉

통해 참사로 인한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랑의 중재자 혹은 메신저의 역할을 보여준다. 상실에 따른 부인과 분노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은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다.

비극이 사랑을 만나 희극이 되다

〈힘을 내요, 미스터리〉(2019)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애인을 둔 가족 드라마의 장르를 반복하면서도 〈럭키〉(2016)를 만든 이계벽 감독의 스타일로 색다르게 변형시킨 착한 영화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빠와 어른스러운 어린 딸의 동행은 〈아이 엠 샘〉(2001)에서 이미 그 감동의 깊이를 확인했고, 백혈병과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지만 어른 뻘치는 똑똑함과 의젓함은 〈열두 살 샘〉(2012)이나 우리나라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2014)의 아역 주인공들을 보는 듯하다. 출생의 비밀을 안은 채 아빠와 대면하는 어린 소녀라든가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희생적인 모습, 강패 같지 않은 강패들의 회화된 이미지 등 〈힘을 내요, 미스터리〉에는 어디선가 본 것 같고 익숙한 장면들이 퍼즐처럼 하나의 그림을 위해 맞춰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장르 영화를 새롭게 인식시

키는 것은 차승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지체장애인 연기는 그와 유사한 영화들이 이미 보여주듯이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연계되어 세속에 찌든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물론이다. 어린 딸 셋별(엄채영)이의 과자를 빼앗아 먹으려는 유치한 행동과 자신의 피를 모두 주고서라도 셋별이를 살리려는 마음이 한 인물로부터 나오는 점은, 이 영화가 찰리 채플린의 영화들처럼 희비극(tragicomedy)의 구조를 갖고 관객을 웃기고 울린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끌어들이는 점은 코미디 장르의 특성을 넘어서서 감동의 드라마로 발전시키는 원동력 역할을 한다. 특히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 철수(차승원)의 행동을 관객이 이해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지체 장애를 갖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참사 현장의 소방관으로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기희생적인 구조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킨다는 사실에서 이 영화의 개성은 살아있다.

비극적 사건을 분노나 허망한 마음이 아닌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은혜를 갚는 현실의 기억으로 소환시킨 것은 이 영화를 기독교적 가치로 해석되게 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거기다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해 지하철 계단조차 내려가지 못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하도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는 사랑의 힘이 치유를 위한 첫걸음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하다. **FAITH & LIFE**



✍ 글쓴이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에서 문화선교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이다. 극동방송의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을 통해 기독교 영화 전파에 힘을 쏟으며 대중강연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선교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과 종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등이 있다.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공동체와 예술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미국의 화가이자 조각가 에릭 피슬(Eric Fischl)은 9.11 테러가 발생한 후에 <열 개의 숨>(Ten Breathes) 연작을 발표하였다. 피슬은 빌딩에서 추락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희생자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녀가 추락하면서 내뿜은 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여인의 절박함이 담아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열 개의 숨> 연작에서 백미는 <사마리아인 연구>라는 브론즈 인물상이다.



에릭 피슬, 사마리아인 연구, 브론즈, 2005

이 작품은 9.11의 희생자를 돌보는 장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단 한 명이라도 구하고자 애쓰는 의인을 작품에 담았다. 고통과 죽음의 감정이 엄습하는 작품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축 늘어진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긴장, 인간애, 공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표현주의적 과잉은 발견되지 않는다. 작가는 엄숙한 구조 장면에서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였다. 에릭 피슬은 이처럼 <열 개의 숨> 연작을 통해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그들에 대한 지지를 잊지 않았다. 재난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제작할 때 그가 초점

을 맞춘 것은 전적으로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이었다.

2022년 이태원의 비극적 참사가 일어난 뒤 시민들의 반응은 피해자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쪽과 오히려 희생자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쪽으로 갈렸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왜 우리는 참사 앞에서도 편이한 입장을 보이며 서로를 향해 사대질을 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까? 피지도 못한 청춘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을 이용하려 드는 것은 옳은 일일까?

세월호 참사의 스쿨닥터 김은지 정신과 의사는 카오스에 빠졌던 학생들을 회복시킨 요인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학생들은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준 분들을 꼽았다고 한다. 그들에게 베풀어준 온정이 가족과 친구 못지않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치유자로 거듭났다. 그들 중 일부는 학대, 학교폭력, 사고 등 트라우마를 겪는 지역 아동을 돕기 위해 조직, '운디드 힐러'(Wounded Healer)에서 취약한 지역 아동을 돕는다고 한다. 이처럼 돌봄은 또다른 돌봄을 만들어 씨앗처럼 새로운 곳에서 다시 자라게 한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셈이다. 상처입은 사람은 타인의 재난과 죽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후 '운디드 힐러'가 된 미술가가 있다. 캔디 창(Candy Chang)은 <내가 죽기 전에>(Before I Die)라는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인슈타인의 큰 그림을 통해 본 과학과 종교의 대화

염동한 (부산대 물리교육과 교수)

앨리스터 맥그래스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성이며, 과학과 이성의 방법을 포함하여 지적으로 총체적인 신학을 세워나가는 신학자이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에 등장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며,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을 모두 세운 불세출의 과학자이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한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이 책은 못 참지!”라는 말을 안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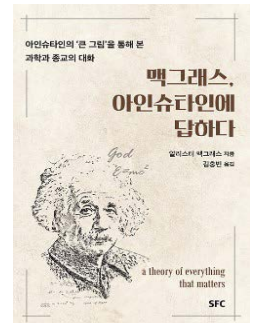
사실 이런 책을 잘 쓴다는 것은 실제로 몹시 어려운 일이다. 첫째로, 과학적으로 충실한 책을 쓴다는 것이 어렵고, 둘째로, 여기에 신학적인 관점을 덧입힌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한 편으로는 과학적 견해와 신학적 견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균형을 잃은 관점을 독자들에게 강요할 가능성도 높다. 이 두 가지 오류는 수많은 가십성 글이나 기사를 통해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오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은 종교인이나 유신론자였음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전부가 아니며, 과학을 포함하여 세상을 총체적으

로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 과학에 덧입혀져야 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들을 충실하게 개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책의 절반 정도는 아인슈타인의 과학적인 업적과 그 역사적인 여정을 돌아보는데 할애하고 있다. 1905년, 이른바 ‘기적의 해’에 등장한 논문들, 그리고 아인슈타인 최대의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하기까지의 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리학의 지식들을 필연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맥락에서 학문적인 오류를 범할 우려도 충분히 있지만,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으로도 아주 충실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일차 자료들을 토대로 아인슈타인과 관련한 개인적인 사건들을 기술함으로써, 현대 물리학의 맥락에서 과학사적으로 재미있는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과학사 읽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나머지 절반은 아인슈타인의 철학적 또는 종교적인 관점을 소개하는 데에 할애하고 있다. 사실 아인슈타인의 과학적 업적을 이끌어 온 근본적인 철학적 관점 중의 하나는 세계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정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맥그래스, 아인슈타인에 답하다〉 알리스터 맥그래스 (지은이) / 김홍빈 (옮긴이) / SFC / 2022

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더 큰 실재를 발견해 나갈 수 있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역학 이론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켰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의 상호 작용들을 하나의 통일된 이론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세계에 대한 통일적 이론을 구상하는 것을 궁극의 이론 또는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부르며, 아인슈타인은 마지막까지 이 이론을 세우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설명하는 궁극의 이론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에 대한 진짜 궁극적인 설명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대체 그런 법칙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더 큰 실재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여기에서 과학과 종교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이 통상적으로 자연의 대상만을 다룬다면, 우리 인간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총체적이며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 that matters)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원제목이기도 하다.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은 대체 어떤 것일까? 이

책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오직 기독교만이 총체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는 주장은 이 책에서 충분히 논증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총체적인 관점을 실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책의 의도는 독자들에게 과학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 총체적 관점이 필요하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권유하는 것에 있으리라 생각한다. 맥그래스의 이 책은 이러한 논의를 출발할 수 있는 흥미로운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김홍빈 박사님의 번역 덕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아주 쉽게 읽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책의 강력한 장점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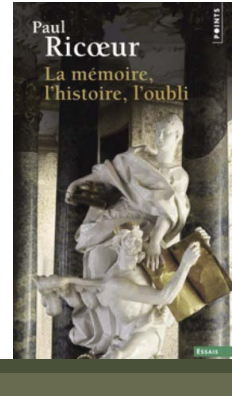


4 글쓴이 염동한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였고(Ph.D), 카이스트 재학시절 기독교학술동아리 RACS(Research Association for Creation & Science)에서 활동했다. 현재 일반상대론 및 양자중력이론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블랙홀과 우주의 기원에 관심이 있다. 자연의 근본 법칙과 우주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이다.

참된 기억과 역사, 그리고 망각의 조건을 넘어서

석중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기억, 역사, 망각 *La mémoire, l'histoire, l'oubli*〉 / Paul Ricœur / Le Seuil / 2000

폴 리코르(Paul Ricœur, 2013~2005)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와 더불어 20세기 후반 생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주목받았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 신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성서 해석학자이기도 하다. 리코르의 〈기억, 역사, 망각 *La mémoire, l'histoire, l'oubli*〉은 그가 사망하기 불과 5년 전에 발간한 대표 저작이다. 이 책은 우리가 경험한 과거 사건들이 어떻게 개인 또는 공동체에 다양한 양상과 의미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저자는 본문만 656면에 달하는 방대한 지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과거 사건이 ‘기억의 현상학’, ‘역사의 인식론’, ‘망각의 해석학’라는 세 가지 층위로 성찰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첫째, 우리의 과거는 ‘기억’을 통해 현재에 재현된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 사건을 현재에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과연 기억을 통한 온전한 재구성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이 아포리아¹⁾는 서양 철학사 전체를 괴롭힌 난제였다. 리코르는 참된 기억이 다음 세 가지의 ‘기억 남용’을 극복하는 데

1) 아포리아(Aporia)는 철학 용어의 하나로 어떠한 사물에 관하여 전혀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는 난관의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문제, 즉 모순이나 해결 불가능한 역설 등을 일컫는 말이다.

있다고 주장한다. 1) ‘기억장애’(la mémoire empêchée)는 어떤 충격이나 상처로 기억이 손상되어 드러난 병리 현상이다. 이 병리 현상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모두 가능하고 정신분석학적 작업으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2) ‘조작된 기억’(la mémoire manipulée)은 특정 정부나 권력이 스스로를 합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령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통해서 실현된다. 3) ‘부당하게 강요된 기억’(la mémoire abusivement commandée)은 스포츠 경기 전이나 국가 기념일 행사에서 낭독되는 문서나 부르는 노래 같은 것들을 통해 실현된다.

둘째, ‘역사’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을 문자로 객관하고 공식화한다. 리코르는 이 역사화의 작업 영역을 1) ‘기록 보관소’(l’archive), 2) ‘설명과 이해’, 3) ‘역사화 작업’(l’opération historiographique)으로서의 ‘재현’이라는 세 영역으로 나눈다. 이 세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증인의 증언 글들로 대표되는 기록 보관소의 글들은 역사의 원천 자료이다. 물론 역사 자료에는 가장 중요한 증언 등의 문자 자료만이 아니라 지문, 사진 등 다양한 과거 사건의 흔적들도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사건을 글로 쓴다는 것은 플라톤의 ‘파르마콘’(pharmakon)처

럼 독이 될 수도 있고, 치료제가 될 수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양한 역사 자료들에 대한 끊임없는 '설명과 이해'의 해석학적 순환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리콤폴르는 역사가와 판사를 비교한다. 공통점은 둘 다 진실의 규명을 목표로 하는 의심과 거짓 발견의 대가들이라는 것이다. 차이점은 판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반면에 역사가에게는 그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즉, 역사는 계속 다시 쓰일 수 있다.

셋째, '망각'은 기억과 역사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기록 보관소'의 자료들은 망각에 대한 일차 방어선으로서 중요하다. 망각 현상은 단순한 기억의 누락 현상일 수도 있지만, 병리적 기억상실증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른바 기억장애라는 것인데 리콤폴르는 프로이트를 따라 우리가 어떤 충격과 상처로 인해 기억을 통한 접근이 차단된 곳, '병리적 망각'(l'oubli pathologique)의 영역이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에게 조작된 기억만이 아니라 '조작된 망각'(l'oubli manipulé)도 있다. 즉,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국면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몰아가는 금지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 왜곡된 결과를 낳는다. 리콤폴르는 여기에 '강요된 망각'(l'oubli commandé) 즉 '일방적 사면'을 하나 더 추가한다. '일방적 사면'은 '제도적 망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기보다 진리의 희생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 사면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해 해법의 모색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반면에 '용서'(le pardon)는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최고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또는 희생자의 용서 조건은 가해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적이고 사회적인 심판 상황을 전제

로 하며,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즉, "용서할 수 없는 잘못과 불가능한 용서 사이의"(entre la faute impardonnable et le pardon impossible, 637면) 간극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최고의 해법인 용서는 무조건적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

리콤폴르의 <기억, 역사, 망각>은 얼마 전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큰 충격과 상처를 안긴, 무려 159명의 젊은 생명이 일시에 사망한 10.29 참사 앞에서, 우리가 이 지난간 사건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기억의 남용을 최선을 다해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기억장애, 조작된 기억, 강요된 기억의 무분별한 수용은 불행한 역사의 반복에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설명과 해석 이전에 '기록 보관소'에 우선 모아질 수많은 증언과 증거, 관련 흔적들의 확보를 위해 국가와 권력이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여전히 들려오는 유가족의 절규와 목마름은 혹시 이 참된 기억을 위한 첫걸음의 실족에서 온 것은 아닐까? 역사화 작업은 양질의 '기록 보관소'의 자료 확보와 함께 그것에 대하여 설명과 해석의 해석학적 순환을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용서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나 용서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해결할 최고 방안 중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건의 예비 없이는 결코 누구도 감히 강요할 수는 없는 불가능한 행위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석중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이다. 지난 28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조직신학, Ph.D), 서울대학교 목사(2012-2016)를 역임했다. 현재 침신대 조직신학 겸임교수, 상대원침례교회 협동목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예천제일교회 기독교 세계관 프로그램 소개



김운수 (예천제일교회 담임목사)

2022년 하반기 제지훈련 성경공부 개강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	2022년 제지훈련 성경공부 개강 (니고데모의 안경)
<p>3월 30일 재미있는 성경공부</p>	<p>니고데모의 안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8주 과정으로 진행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 11월 10일(목) *장소: 2층 유.조동부실 *주최: 예천제일교회 성장국 교육부 *회비: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8주 과정으로 진행 *일시: 2022년 5월 3일 첫째주-4월 25일(세째주) *장소: 2층 유.조동부실(필요시 중으로) *주최: 예천제일교회 성장국 교육부 *회비: 만원

우리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다. 개인주의,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의 강력한 도전 속에서 교회 교육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교회 교육의 위기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성경적 교육보다 세속적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초래되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질적인 하락을 겪게 되었고, 교회 교육의 기반이 약해져서 신앙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필요성을 깨닫고,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은 신앙형성과 인격 형성

의 토대를 구축해주고, 관계를 통한 사회성을 확립해주며, 개인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와 환경윤리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한다.

예천제일교회는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조그만 시골교회이지만, 매년 꾸준히 성경공부를 하는 교회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 년간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2022년 상반기(4~5월, 8주간) 교육에는 20여 명이 참석했고, 하반기(9~10월, 8주간) 심화 과정에는 13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상황이 너무 심할 때는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는 핸드폰을 통한 줌 사용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래도 사용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로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니고데모의 안경>(신국원, IVP)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상황이어서, 화요일반, 목요일반을 만들어서 미리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한 명씩 발표자를 두어서 발표하게 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큰 핵심인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다.

2022년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다양한 삶의 현장,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생활'을 다루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필독서는 <기독교교육과 윤리>, <기독교인의 생활윤리>를 바탕으로 8주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었다. '개인윤리'(거짓말, 성, 결혼, 가정생활), '생명윤리'(배아, 시험관수정, 배아줄기세포,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 '정치윤리'(국가, 전쟁), '경제윤리'(주5일 근무제, 단단계판매), '사회윤리'(직장, 사회참여, 환경오염)라는 폭넓은 주제를 다룸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과 윤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신앙 인격과 지평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가 막연하고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한 해 기독교 세계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과 구체적 삶의 지침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말씀의 기초 위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한다. **FAITH & LIFE**

예천제일교회 기독교세계관 성경공부 / 수료자 소감문

머리끝까지 짱하게 하는 얼음냉수 같은 시원함


시골 사람들에게 'in Seoul'은 굽직한 한방은 아니지만, 성공을 위한 첫 관문 같은 느낌을 주는 만족감의 표지로 통한다. 시골교회에서 사라진 20~30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시골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은 찬양집회나 성경모임 등의 교회 프로그램을 대형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대형교회가 주는 익명성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로 보인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골교회보다 도시교회에서 더 고급지고 우아하게 느낄 수 있고, '서울'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깝다.

나 역시 어떻게 하면 이런 'in Seoul'의 표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예천제일교회 성장국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니고데모의 안경>(신국원, IVP)라는 책을 만나면서 해갈의 시원함과 상쾌함을 맛보았다. "무조건 'in Seoul'이지!"라는 청년들에게 이 책을 꼭 읽도록 권하리라는 마음도 먹었다. 그 해갈의 기쁨은, "세상을 보는 안목은 특정한 장소가 주는 분위기, 오감을 도구로 하는 경험치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만이 그리스도인의 안목이 생긴다"라는 저자의 생각에 맞장구를 치면서였다.

첫 번째 해갈의 기쁨은 <니고데모의 안경>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이 뺨뿔어졌음을 보게 되었고, 나의 한계를 넘어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된 것이었다. <니고데모의 안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저자 신국원 교수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온 나였지만, 더운 날의 얼음냉수의 시원함과 같았다.

두 번째 해갈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있는 장소로 인해 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곳에 임한다"라는 것이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나는 변화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변화의 주체이며,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고백에는 소홀했었다. 모든 것의 중심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이다. 목줄기를 타고 내려와 다시 머리끝까지 짱하게 하는 얼음냉수 같은 시원함에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이러한 시골교회에서 사라진 20~30대들이 'in Seoul'이 아니라 'in Bible'을 통해 세상을 보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 예천제일교회의 제자훈련만이 아니라 다른 시골교회에서도 이런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이 행해진다면, 반드시 실제 삶의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쓴이 이지은

예천제일교회 권사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기독교 세계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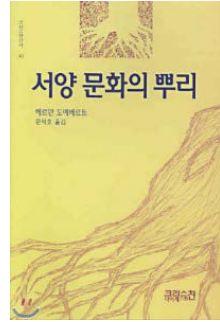
- 생애와 사상



20세기 기독교 세계관 철학자 중, 네덜란드의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정립한 성경적 세계관의 바탕 위에서 피조 세계를 가장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철학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러 면에서 그의 철학은 비판을 받았고 동시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사상은 반드시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 대가의 사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그가 씨름한 서양 철학 전체를 그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그가 기독교 철학자로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성경적이면서도 비판적 관점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의 ‘온전한 지성’ 지면을 통해, 먼저 도여베르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필두로 5회에 걸쳐 그의 사상과 영향에 대해 간략히 다루어 보겠다.

헤르만 도여베르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창간한 일간지 <더 스탠다르트>(De Standaard)와 주간지 <더 헤라우트>(De Heraut)를 구독하는 칼뱅주의 신앙 환경에서 자라나 암스테르담에 있는 개혁교회의 김나지움(Het Gereformeerd Gymnasium)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처음 철학을 접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카이퍼가 설립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음악과 화란 문학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 낭만주의적 경향은 나중에 그의 기독교 철학 정립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가령 그가 괴테(Goethe)의 말을 인용하면서, 철학의 사명이란 “모든 것이 어떻게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가”(wie alles sich zum Ganzen webt)를 궁구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결국 철학이란 “전체에 대한 관점을 추구하는 것”(Filosofie is het streven naar een visie op de totaliteit)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인간의 마음에 집중된 인격의 통일성”(de eenheid van de menselijke persoon, die geconcentreerd is in het hart)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법학을 전공하여 <네덜란드 헌법에서의 내각>(De ministerraad in het Nederlandsche staatsrecht)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1917년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네덜란드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922년 헤이그에 있는 반혁명당(The Anti-Revolutionary Party)의 연구센터인 카이퍼 연구소(Kuypersichting)의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여기서 4년을 근무하면서 도어베르트는 카이퍼가 가졌던 비전 즉, '신칼뱅주의 생활 및 세계관과 이것을 법, 경제 및 정치 방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de grondslagen der zogenaamde neocalvinistische levens- en wereldbeschouwing in haar toepassing op recht, economie en politiek)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 기간에 그는 나중에 그의 기독교 철학 체계를 세우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발전시켰다. 그는 이러한 연구 작업의 열매를 당시 그가 창간한 반혁명당의 기관지 <반혁명적 정치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에 일련의 논문들로 발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카이퍼의 칼뱅주의적 세계관 및 신학 사상이 도어베르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카이퍼의 '신비적' 명상록들을 읽고 나서 도어베르트는 사상의 종교적 뿌리를 발견하게 된다.

카이퍼 연구소에서 자신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 도어베르트는 1926년 자유대학교의 법철학교수로 임명된 후 거의 40년간 재직하면서 자신의 기독교 철학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다. 나아가 그의 동료인 동시에 자형이었던 철학부 교수 폴렌호브(D.H.Th. Vollenhoven)와 함께 1936년에 칼뱅주의 철학협회(Vereniging voor Calvinistische Wijsbegeerte)를 설립하였고 <개혁철학>(Philosophia Reformata)라는 학회지를 발간하면서 소천하기 1년 전인 1976년까지 편집장으로 섬겼다.

카이퍼 연구소에서 발전시킨 사상은 자유대학교에서 꽃을 피워 세 권의 대작 <우주법 철학>(De wijsbegeerte der wetsidee)을 1935부터 1936년까지 출판했다. 첫 권 서문에서 그는 "내 사상의 가장 큰 전환점은 사상 자체의 종교적 뿌리를 발견한 것이다. 성경이 모든 인간 생명의 종교적 뿌리라고 말하는 '마음'의 중심적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용준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B.A),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Div), 네덜란드 자유대학교(Drs.), 남아공 포체스투롬대학교(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독일 쾰른한빛교회와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동대 학문과신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문> 등이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제4회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나눔 콘서트



그리스도인, 인공지능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일시 : 2월 10일(금) 저녁부터 11일(토) 오전까지
장소 : 서울대 기독교인 회관 & 사범대(& 온라인)
온라인(ZOOM) : [HTTPS://URL.KR/QL5281](https://url.kr/ql5281)

<내용 구성>

1부(2/10, 금 저녁 7:30~10:30) : <2084>(존 레녹스) 정리&토론
(발제 : 임승찬, 채민석, 조예상, 이예원, 권미영, 이정식)

2부(2/11, 토 오전 10:00~11:30) : 특강&질의문답
강사 : 이유한 박사(KAKAO BRAIN, KAGGLE GRANDMASTER)
- 주제 : "A.I. 기술 산업 어디까지 왔나?"



선정도서: 2084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이 되자!!

<참가 문의>

김다빈 (서울대 박사과정 / 기계공학, 010-7151-5199)
조예성 (카이스트 석사과정/ 데이터사이언스, 010-6339-9466)
이정식 (경희대 석사과정 / 문화콘텐츠, 010-2501-6211)
권미영 (성균관대 박사과정/ 교육철학, 010-3926-4626)



이유한 박사

주최: 기독교대학원생연합(KAIST, KHU, SKKU, SNU) 후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앙과 삶> 독자 한마디

<신앙과 삶> 11+12월호 | 특집: 양극화에 관한 공동체성과 기독교

• 이번 호처럼 좋은 주제의 기획 글들은 연속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읽는 것도 좋겠다. 필자에게 원고 분량을 더 정확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한다. 최용준(26-27면), 고세일(46-47면), 김욱(48-49면)의 글은 다른 분들의 것과 견주어 볼 때 여백이 더 있었다.

-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극화 문제를 다룬 것은 시의적절했고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청년 시론'과 '청년 일터 이야기'도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각 글의 주요 문장 혹은 요약물 2~3개 문장으로 제시하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읽고 느낀 점, 동의 및 반론, 질문 등 짧은 우기를 독자가 자유롭게 투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잡지 마지막 부분에 안내하면 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 박신현(고신대 영어과 교수)

•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위협이자 고통이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여러 분야의 그리스도인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 대안을 제시한 귀한 글들을 읽고 공부할 수 있어 매우 감사했다. 특히 전명희 교수의 특집 글은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사회 트라우마를 겪은 한 세대의 아픔이 세대를 이어 안착 유지된다는 분석으로 교회의 성찰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글 많은 공감이 되었다.

- 이재희(가천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 특히 장동민 교수의 '한국교회의 이념적 양극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31.4%), 중도(39.8%), 보수(28.8%)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보수나, 진보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서로를 악마화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교회 내에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 이종철(기독교학 교교육연구소 부소장)

•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과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지하는 것 사이에서 오랜 시간 불편함과 고민이 있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정치적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신앙과 삶> 지난 호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유의 힘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 조지혜(2023년 2월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졸업예정자)

• <신앙과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신앙의 본질을 각성하게 한다. 특히 손봉호 교수의 '시선', 신국원 교수의 글을 통해 어른의 목소리가 엄중하게 들렸다. 이번 호의 다양한 글들은 양극화 시대를 치유하는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 독자들은 각자의 위치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지상선(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강사)

• '양극화에 관한 공동체성과 기독교'를 특집 주제로 정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여기 실린 글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과 교회에 유익한 해안과 서로를 위한 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 정동영(한국외대교회 담임목사)

• 다양한 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개인적으로 '사람 사이' 김선욱 교수님 인터뷰가 더 흥미로웠고 편하게 다갈 수 있었다. 아마 대화 형식의 글이라 그런 것 같다. 지금도 훌륭한 콘텐츠이지만, 한국인만 아니라 외국인(다문화 학생, 외국 인 석학과 사역자 등)의 신앙적 삶도 함께 나누어보는 건 어떨지 제안해 본다. - 홍지희(한국공학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2023년 제1차 실행위원회 개최

일시 : 1월 28일(토) 오후 7:00 / 장소 : 사무국 Zoom 회의실
 안건 : 2022년 사업 보고와 결산 및 2023년 사역 계획 & 신규 임원 추천
 참석 : 실행위원 19명 중 15명 참석

2023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일시 : 1월 30일(월) 오후 6:30 / 장소 : 사무국 Zoom 회의실
 안건 : 2022년 사업 보고와 결산 및 2023년 예산안 승인, 2023년 임원 추천
 참석 : 이사 10명 중 6명 참석

2023년 제1차 정기총회 개최

일시 : 1월 30일(월) 오후 8:00 / 장소 : 사무국 Zoom 회의실
 안건 : 2022년 사업 보고와 결산 및 2023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 승인, 2023년 임원 임명
 참석 : 대의원 28명 중 25명 참석

(사)기독교세계과학동역회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법무부 장관 승인

(사)기독교세계과학동역회는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공시됨.

<신앙과 학문> 학술지 재인증 평가 결과(등재 학술지 자격 유지)

2022년도 학술지 <신앙과 학문>의 재인증 평가 서류 제출하였고, 그 결과 등재 학술지 6년간 유지로 결정됨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오피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그소서원 대표), 김미영(사람과삶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오피틱스 연구위원),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송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송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표기는 신임, 임기 : 2023.01.30.~2025.01.29.)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황(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스마투스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경민(전남대 교수, 전기공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곤(한동대 교수, 국제어문학), 신웅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Paul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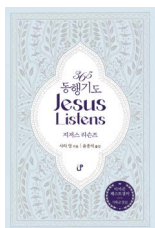
▶ **CTC**(유경상 대표)

- 3월부터 수영로교회 기독교세계관센터와 협력하여 부모교사 및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어린이 교육 : 작년 9월부터 진행된 온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학교인 '하이세 아카데미'가 2학기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를 종강했다. 3월부터 '하이세 아카데미' 3학기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를 개강한다.
- 지도자 교육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3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24명)과 어린이세계관교육을 준비하는 '2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8명)을 종강했다. 3월부터 3기 기본과정과 2기 강사과정을 개강한다.
- 부모 교육 : '기독교세계관으로 그리스도마 신화 읽기'와 '기독교세계관으로 천로역정 읽기'를 마치고, 3월부터 '기독교세계관으로 살로의 거미줄 읽기' 진행과 '어린이 & 청소년 월페이'를 개설한다.
- 대학생 교육 :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 & '기독교 세계관과 코칭' 수업을 종강했다.
- 교회 '어린이세계관학교' 교육 :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에서 1학기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그리고 성광교회(남세주 담임목사)에서 2학기 '하나님, 미디어가 뭐예요'를 종강했다.

* 문의/신청 : CTC 사무국(010-3673-8439) &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 바란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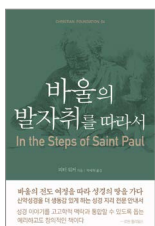
신간 소개



〈365일 동행기도 지저스 리스너스〉 사라 영 지음 | 윤종석 옮김 | 424면 | CUP

빛나는 하루를 여는 365일 기도
우리 기도를 듣기 좋아하시는 주님과의 즐거운 관계를 선물한다!
 영성 사역자 저자는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소명으로 여기며,
 그 결실을 책으로 나누어, 많은 유익을 끼쳤다.

곧 나올 책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피터 워커 지음 | 박세혁 옮김 | 528면 | CUP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 성경의 땅을 가다
 신약성경을 더 생동감 있게 하는 성경 지리 전문 안내서
역사와 지리, 고고학을 탁월하게 융합한 최고의 성경 지리 안내서
 성경을 시공간 속에서 더 입체적으로 읽게 하는 흥미진진한 참고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 (2022년 11월, 12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2년 11월	2022년 12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2년 11월	2022년 12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730,000	1,700,000	인건비	일반급여	5,100,000	5,100,000
	임원회비	500,000	55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4,720,000	4,200,000		소계	5,500,000	5,500,000
	기관후원금	3,200,000	4,0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380,038	407,776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237,517	224,362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5,160	1,240
	VIEW후원금	1,205,000	1,175,000		소모품비	8,000	10,300
	기타후원금	0	0		식비	320,960	265,100
	월보구독료	594,500	499,500		수선비	0	0
	학술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792,430	792,43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퇴직연금	234,030	234,030
	기타	0	0		회의비	0	14,10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5,000	
			서무비		121,000	121,000	
			기타(지급수수료)		145,777	366,415	
			소계	3,149,912	3,346,753		
	소계	11,009,500	12,184,500				
기타수입	일반이자	0	13,153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205,045	1,145,265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264,770	1,204,990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570,761
	기금차입	0	0		발송비	7,000	624,80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2,695,000
	예수금	409,000	409,000		소계	7,000	5,890,561
				기타	세금	115,620	37,360
			잡비		50,300	800	
			소계		165,920	38,160	
	소계	409,000	422,153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소계	0	0		소계	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60,000	160,000	학회	학회장소사용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자료제작비	129,80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회지판매	0	0		학술지인쇄비	0	953,00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발송비	57,420	0
	학술지게재료	0	4,200,000		학술지심사료	0	960,000
	저작권료	0	0		학회조교비	0	0
	학회기타수입	5,500	0		학회기타	202,520	0
	소계	165,500	4,360,000		소계	389,740	1,913,00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946,625	1,065,08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1,065,080	1,125,150
	전월 이니시스 입금	0	5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50,000	0
	소계	946,625	1,115,080		소계	1,115,080	1,125,150
당월 수입액		12,530,625	18,081,733	당월 지출액		11,592,422	19,018,614
전월 이월액		36,254,795	37,192,998	차월 이월액 (잔액)		37,192,998	36,256,117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2년 11월)

3천 김성권, 3천5백 박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정영,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윤종선,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민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우,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상태, 방선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웅재, 고철웅,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남진, 김능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균, 김재정, 김보모, 김정준, 김정철, 김경호, 김종원, 김종일, 김중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희정, 김홍민, 김화선, 나영진, 남상우,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안나,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이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이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대, 유영준, 유재은, 유해우,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길형, 이노운,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명희,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인,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규,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경나,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훈,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재광,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용수, 정이레, 정재섭, 정현주, 정현우,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욱,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희, 조현용, 조현우, 조현차, 조혜선, 조혜진,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용성,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민, 하재희, 하현진, 한동민,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하,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선연, 황세한,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하, 김준원, 박정호, 2만 강용란, 김보경, 김용숙, 김인수, 김재완, 김정욱, 김태진, 마민호, 박계호, 박기모, 박홍식, 빛과소금교회,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윤재림, 이근, 이기서, 이연우, 장인석, 정윤조, 정훈, 채기현, 최현석, 최현준, 허정도, 황혜진,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임준용, 이근호, 이수형, 이은경, 이은실, 잡지협회,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영주, 김정일,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남민영, 손정엽,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삼, 전희경, 정애배, 조득정, 한윤식, 6만 김익, 박수진, 석중준, 소은희, 송중철, 이동준, 임우형, 10만 김미영,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12만 강병덕, 김민철, 박문식, 서미경, 이우성, 이풍인, 13만 최태연, 15만 최현일,

계 7,859,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고재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일원교회, 6만 수원가톨릭대학교도서관, 10만 강남교회, 개동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310,000원

전계 11,169,500원

회원후원

(2022년 12월)

3천 김성권, 3천5백 박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정영,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윤종선,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민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우,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상태, 방선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웅재, 고철웅,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남진, 김능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균, 김재정, 김보모, 김정준, 김정철, 김경호, 김종원, 김종일, 김중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희정, 김홍민, 김화선, 나영진, 남상우,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안나,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이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이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대, 유영준, 유재은, 유해우,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길형, 이노운,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명희,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인,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규,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경나,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훈,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윤조,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용수, 정이레, 정재섭,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욱,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희, 조현용, 조현우, 조현차, 조혜선, 조혜진,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용성,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민, 하재희, 하현진, 한동민,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하,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선연, 황세한,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하, 김준원, 박정호, 2만 강용란, 김보경, 김용숙, 김인수, 김재완, 김정욱,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서선정, 서우경,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장인석, 정윤조, 정훈, 채기현, 최현석, 최현준, 허정도, 황혜진,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임준용, 이근호, 이수형, 이은경, 이은실, 잡지협회,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영주, 김중우, 김택호, 손정엽,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삼, 전희경, 정애배, 조득정, 한윤식, 황준용, 6만 석중준, 송중철, 오익석, 10만 김미영, 김태항, 박동윤,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태연, 12만 김민철, 박문식, 정인석, 15만 최현일, 100만 정희영,

계 8,334,500원

기관후원

5만 다운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일원교회, 6만 호남신학대학교도서관, 10만 강남교회, 개동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사)김덕드림선교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50만 산본교회,

계 4,010,000원

전계 12,344,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충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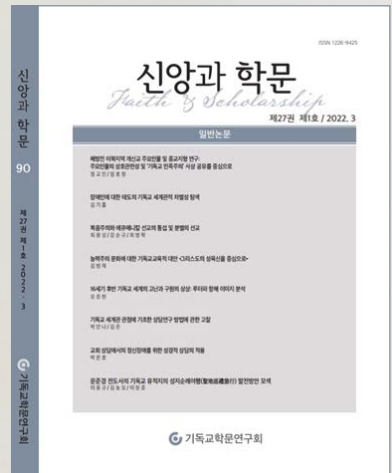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과 학문>에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호(28권 1호)
투고 마감일은 2월 10일입니다.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5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 마감일: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2022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상 세 안 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 반 문 의. gihakyeon@gmail.com (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 (투고, 심사) 02-3272-4967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